

주요 받는 말은 서로 뜻이  
 통하고 듣는 이로 하여금 기분  
 게 하라 나쁜 감정 일으키지 않게 한다면 말  
 마다 주옥이 보배이리라  
 (法句經·언어론 10절)

# 東大新聞

창간일	1964. 1. 1
발행처	경북대학교 동대신문사
발행시간	월요일 휴무
발행량	100-715
전화	100-715
팩스	100-715
주소	경북대학교 동대신문사
인쇄	100-715
편집	100-715
발행	100-715
광고	100-715
구독	100-715
판매	100-715
배달	100-715
인쇄	100-715
편집	100-715
발행	100-715
광고	100-715
구독	100-715
판매	100-715
배달	100-715

제 1135 호 (주간) 1964. 1. 1 등록번호 다-10 1955. 10.13 제3종우편물 (가)급인가 The Hongguk University Press 1993년(단기4326년) 10월27일 (수요일) 【 1 】

## 총학생회 2개조 입후보

기호1-류치건·박정진, 기호2-박현식·고정환

총여 입후보자 4일만에 사퇴...3년째 무산

제26대 총학생회 정·부회장 선거에 기호1번 류치건(역교4)·박정진(아간부교4)조와 기호2번 박현식(전기4)·고정환(아간부교3)조가 입후보했다.

(관린인터뷰 10면)

지난 22일 입후보자 등록이 마감된 이번 총학생회 정·부회장 선거는 오늘(27일)공보부착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이번 제26대 총학생회 정·부회장 선거에 기호1번으로 입후보한 류·박조는 '세계로 가는 통일시대, 생동하는 민족대학 건설을 다짐하라!심자매의 감동'을 주제로 '심자매'라는 구호로 5백여명의 추천을 받아 출마했다.

기호2번 류·박조의 주요공약으로는 △동국의 자부심부활, 불교도·동문·재학생이 함께 어울리는 성대한 동국중흥회 창립대회, △생활·학문·취업의 공동체 학생들의 의견제출과 호응하는 제4기 자주적학생회 건설 △취업전선 자료실·사회진출 학교를 강화하며 예비사회인의 경쟁력 향상 △통일대비, 이북 청년들과 동아 청년들의 직접교류 실현-김종태 대

학 초청 학술·체육 가을 대동제 개최 △교육환경 개선-등록금 책정에서 학원복지 혁신까지 학생들이 결정하고 총학생회 집행 등이다.

한편 기호2번으로 출마한 박·고조는 '사회대개혁의 큰 결심, 개성과 집단적 창조열로 함께 하는 진보공동체'로 이제 청년들의 단결이 앞장설다.'라는 구호로 4백66명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했다.

기호2번 박·고조의 주요공약 사항으로는 △진보정당 건설을 통한 사회개혁시대의 당당한 주체로 설정 △개성과 집단적 창조열로 함께하는 진보공동체 건설 △학원 자주화 투쟁의 새로운 기지로 복지동국 건설부쟁 전개 등이다.

지난 22일 후보자 등록마감 직후 있었던 시행세칙회의에서 기호2번 선거운동본부는 시행세칙의 개정배경의 공개를 요구하는 한편 개정된 시행세칙 중 몇몇 부분이 정채선거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이의제기했다.

또한 기호2번 선거운동본부는 지난25일 제26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 제기한 부

분에 대한 유인물을 배포했다.

이에 대해 제26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정주영·아간부교4 이하중선위)는 지난25일 중선위 회의를 열고 선거시행세칙의 개정된 부분과 배경에 대해 대차별로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나머지 이의제기에 있어서는 중선위의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이날(25일) 기호2번 선거운동본부에서 배포한 유인물을 사전선거운동과 중선위 비방이라고 규정하고 주의조치와 함께 기호2번 입후보자에게 사과대처를 요구했다.

한편 제26대 총학생회 정·부회장 선거에는 3년만에 처음으로 강정민(산공4)·김주영(농생3)조가 단독 입후보 했으나 지난 25일 "문적포대의 취향"으로 더이상 선거를 진행시킬 수 없다"고 밝히며 사퇴했다.

이로 인해 총여학생회 정·부회장 선거는 3년연속 무산됐다.

이에 대해 중선위는 "개인적 사정에 의해 사퇴한 했지만 제9대 총여학생회를 책임지고자 입후보했던 공인으로서 학생들에게 대한 사과와 뜻을 표명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있었던 제26대 총대의원회 선거 개표결과 한정섭·이재용조가 3표차로 당선됐다.

## 서울-경주간 전용전화 개통 양캠 신속연락 통한 행정효율화 기대

서울캠퍼스와 경주캠퍼스간 전용회선 개통식이 지난 25일 중앙실에서 있었다.

이날 전용회선 개통은 기존의 교환대 교환연결로 통화 가능하던 R-D방식에서 3회선을 전용회선으로 신설해 교환 연결없이 직접 다이얼이 가능한 E-N방식으로 이용가능하도록 공사가 이루어졌다.

이로써 E-N방식 3회선이 신설되고 비상시 이용가능한 R-D방식 1회선을 확보하게 됐다.

이 E-N방식 도입으로 지금까지 방식처럼 국번을 누르거나 교환을 통하지 않고도 연락이 가능하며 구내전화이기 때문에 전화요금도 가산되지 않는다.

이에 관하여 한 관계자는 "직접연결로 교환의 업무가 줄어들었고 신속한 연결이 가능해져 서울캠퍼스와 경주캠퍼스간의 행정의 일원화를 촉진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영·호남지역 동문체육대회  
 본교 대구지역 총동창회(회장=신영남·물리 67졸)주최 제

10회 영·호남지역 동문체육대회가 지난 24일 오전 10시부터 경주캠퍼스 문무관에서 개최됐다.

총동창회장 황영수(정치·53졸) 및 총동창회 간부 10명을 비롯 대우·포항·경주지역과 부산·호남지역 4백여명의 동문이 참가한 이날 대회는 출타하기, 배구 등 총 3개 종목이 치뤄졌다.

대구지역 동창회가 종합 우승, 경주지역 동창회가 준우승을 차지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는 내년부터 '동국인 체육대회'로 명칭을 변경하며 규모를 확대시킬 예정이다.

## 총대 한장섭·이재용조 당선 내일(28일) 단대학생회 투표 마무리

해 88표를 득표한 기호1번 한정섭(철4)·박대용(물교3)조에 3표차로 당선이 확정됐다.

88%의 높은 투표율을 보였으며 무효표는 한표도 없었고 오차표는 1표나 없었다.

제10대 이과대 학생회 정·부회장에 기호1번으로 출마한 한정섭(철4)·박대용(물교3)조가 당선됐다.

총유권자 1천9백42명중 62%인 1천2백44명이 투표한 이번 선거에서 한정섭·박대용조는 찬성 1천65표, 반대 1백23표, 무효 11표, 오차 5표로 당선이 확정됐다.

## 한·일 학술교류회의 '미래사회의 불교' 주제로

본교는 재해학교인 일본 대정대학과 학문적 발전 및 우호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한·일 학술교류회의를 오는 11월4일 동국관(L101)에서 개최한다.

6회를 맞는 이번 학술회의는 '미래사회의 불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불교대 조종길(불교학)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한다.

본교 참석교수는 다종교사회의 불교-불교의 융합성을 발표한 이영자(불교학)교수, 미래사회의 승가의 위상성을 발표한 한보광(신학)교수, 불교와 과학정신을 발표한 민태진(화학)교수등 3명이며,

대정대학 참석교수는 藤井井雄 一島井應 村瀬嘉代子 교수 등 3명이다.

이후 있을 종합토의는 본교 서윤길(불교학), 오형근(불교학), 박선영(교육학), 이병산(신학)교수와 대정대 廣瀬卓爾 교수가 함께한다.

▲하마모(식품공학) = 지난 23일 고려대학교 인문 기념관에서 열린 한국 산업 미생물학회 총회에서 공로상 수상.

## 보수

얼마전 교수와 학생을 포함한 대학사회의 온갖 별명이 한 걸음 더 나아갔는데, 통렬하게 지적 비판되어 그것이 마스크에 오른 적이 있었다. 세인들의 놀라움과 인상은 시선을 모으기에 충분했던 이 사태를 두고 학생·학원 사이에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반응이 있는 것 같다.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들에 대한 용기있는 자기비판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일부 대학 그것도 특수한 사례를 마치 모든 대학 일련의 일인 것처럼 매도했다는 마뜩잖아 하는 반응이 그것이다.

대학마다 사람마다 감도(感受)는 다르겠지만, 교수는 교수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아

## 공부(工夫)라는 것은

플레 세져 들을 만한 대목은 없지 않다고 생각된다. 연구에 태만하고 가르치는 일에 불성실한 교수, 행사를 앞세워 휴가를 마치 권리처럼 주장하고 시험에서 부정행위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학생들의 의식구조 등 대학사회에

는 공부를 재근하는 터덜터덜 들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공부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 참 의미를 새겨야 할 일이다. 한 단.

공부란 말이 사전적으로는 '학문을 배움'으로 간단하게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공부

울 때 그것은 과학(science)이라는 말과도 깊이 통하는 일면이 있다. 그럴 경우 그 말이 풍기는 분석적이고 차가운 객관성의 것이지만 그런 '학문을 배움'이 결코 공부의 전체 의미는 아닌 것이다. 결국 불교의 고유한 용어로서의 공부라는 것은, 인하고 생각하고 창조해내고 마침내는 진리를 체현 혹은 체득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구도(求道)·수도(修道)로서의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말이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진정한 배움이다.

공부하는 대학. 적어도 불교정신을 건재이념으로 하는 우리 대학은 교수·학생을 막론하고 다 같이 그렇게 공부하는 대학임을 자랑스럽게 증명해 보여야 한다.

李 達 春

인재와 기술로 세계에 도전하는 국민기업-삼성

인후 4시 이후—  
**삼성인의 뒷모습엔 표정이 있습니다.**

7시 출근, 4시 퇴근—  
 회사에서 획기적으로 도입, 실시하는 조기퇴근제로 삼성인의 오후가 조금 특별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한창 바쁠 오후 4시, 삼성인은 그날의 업무를 정리하고, 퇴근을 알리는 방송을 등뒤로 한 채 회사를 나섭니다.

일할 때는 집중해서 일하고, 여가시간은 자기개발과 휴식으로 삶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로 실시한 조기퇴근제—  
 요즘, 삼성의 전 임직원들은 퇴근후의 여가시간을 활용해 그동안 이렇게 자평제로 소홀히 했던 외국어공부, 취미생활 등을 통해 잃어버렸던 자신의 생활을 찾게 되었습니다.

삼성인은 오후 4시가 되면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과감한 제도개혁과 질의주경영으로 초일류기업을 추구하고 있는 삼성—  
 삼성은 끝없는 도전과 자기혁신을 통해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젊은이와 만나고 싶습니다.

SAMSUNG  
 삼성

'93년도 공채신입사원

이달의 여론조사 학생회 선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실성 있는 공약 마련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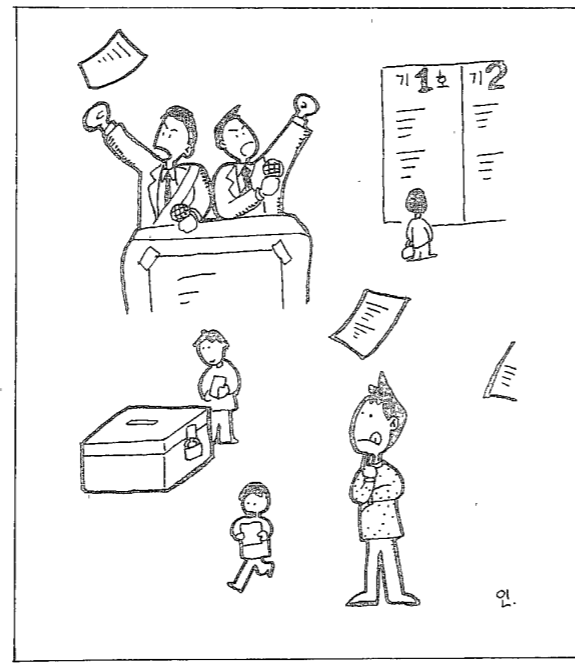
후보자·선거자, 올바른 선거의식으로 임해야

지난 25일 공과대 정·부학생 회장 선거시작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선거철이 돌아왔다. 이에 분사 여론조사부에서는 학생회 선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설문·경주 3백3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분석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회 선거에는 대다수(3백12명) 학생이 참여하겠다고 밝혀 높은 관심을 나타냈으나 모든 동아리인들이 선거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많은 학생(2백23명)이 후보선택 기준에 있어 공약사항을 가장 중시하고 있고, 질문에서 예로 든 세가지 사항 모두 고려한다는 후보의 인품이나 능력을 중시한다는 것이 기타의견으로 나와 후보선택에 있어 객관적인 판단을 중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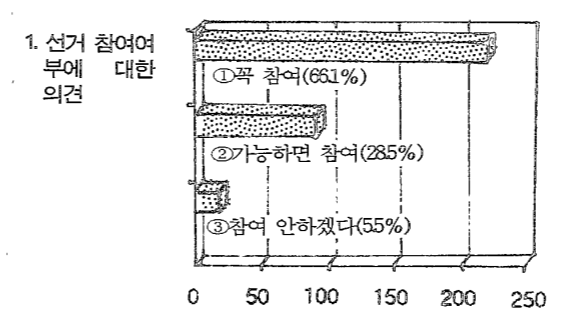
또한 무리한 공약이 학생선거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대부분의 학생(1백58명)들이 여기고 있어 후보자들의 현실성 있는 공약이 요구되어진다. 그밖에 문제점이라고 단한 것을 보면 학생들의 선거에 대한 의식부족과 학생운동정파간의 갈등심화 등이 있었다.



(여론조사부)

- 1. 이번 선거에 참여할것인가?
1) 꼭 참여하겠다. 218명(66.1%)
2) 가능하면 참여하겠다. 94명(28.5%)
3) 참여하지 않겠다(1-1로) 18명(5.5%)

- 2. 후보 선택에 있어 그 기준은?
1) 후보의 경력. 37명(11.5%)
2) 공약사항 233명(6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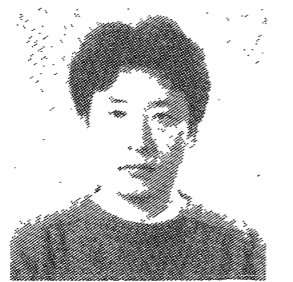


지난호 동대신문(10월 20일 자)에서 가장 주된 내용은 선거관련기사였다. '초대만화'를 비롯하여 '동국만평', '사실'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모두 선거 시기를 맞이하여 공정선거, 깨끗한 선거를 치룰 것을 당부하고 있다. 그리고 요즘은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4학년들의 졸업논문에 관

'오늘을 사는 동국인' 인물 선정, 객관적 견해와 인품 필요

한 기사도 선거관련기사 못지 않게 시사성 아주 적절하게 잘 지적하였다. 한가지, 2면에 실린 '오늘을 사는 동국인-미당 서정주'에 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과연 필자는 미당을 어떠한 관점에서 다루었는지 의문이다. 동국인으로서의 미당인지, 시인으로서인지, 내용의 일관성이 결여되었다.

동문/칼럼



권 일 영 (중앙일보 기자, 경제학과 83졸)

제작된 연발이던가, 우리 회사에 근무하는 기자적 동문들만 모처럼 술자리를 마련한 적이 있다. 중앙일보 편집국에 있는 나중성 선배의 제안으로 모였는데, 열명 남짓한 기자들이 모였다. 회사에 입사하고 처음 갖는 동문들의 모임이었다. 무슨 뚜렷한 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저 얼얼이나 확인하고 싶다는 뜻이었다.

실과는 겨우 2주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그러나 이 친구 열이름을 보니 지도 어딘 두 달이 넘어서는 것 같다. 이따금 낯설고 불쾌해진 얼굴을 씩 다

생활에서 찾는 학창시절

감적을 대신했다. 여러 선배들과 함께 한 그 자리는 만취의 상태에 이를 정도로 긴 술자리였다. 모두들 즐겁게 옛날 이야기를 하고, 학창시절의 기억들을 되살렸다. 사실 말이 동문이지, 서로 바쁘게 살아가는 처지에 점심 한끼 함께 하기가 쉬운 노릇은 아니다. 각자 마감 시간이 다르고 업무의 사이클이 제각각이어서 실할 경우에는 한 줄을 사이에 두고도 두세 달씩 얼굴 구경하기가 힘이 든다. 그러나 기적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나, 악수나 하며 '언제 점심이라도 같이 하자'는 기억 없는 약속으로 섭섭함을 달래 뿐이다.

우리 회사에서 멀지 않은 곳에 경향신문사가 있다. 이곳에는 나와 같은 시절에 학교를 다닌 선배와 친구, 후배가 근무하고 있다. 내가 알기

면 학창시절처럼 육을 해대기도 하고, 삼십 중반을 넘긴 나이에 또 그 때 시절처럼 다정한 양 어깨에 손을 얹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행동이 이 때는 조금 속스럽게 느껴진다. 까닭은 다르다. 물론 나이가 탓도 있었지만, 자주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권이 선배나 친구들을 만나 학창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것은 아니다. 문득문득 잊지 않은 일들이 떠오르며, 그 때의 기억이 떠오르며, 그 때의 기억이 떠오르며, 그 때의 기억이 떠오르며...

매체비평

서해페리호 사건 '특종'은 언론의 질을 가늠하는 잣대인가? 기자는 '특종'을 위하여 존재하는가? 다소 생동한 질문을 던지는

과열·추측보도로 오점 남겨

언론, 정확·공정으로 사명 다해야 것은 서해페리호사건에서 나타난 언론의 과열경쟁의 폐해를 너무나 크게 경험했기 때문이다. 한국언론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오명과 오점을 남긴 이번 사건보도는 우리 언론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아울러 보여 주었다. 몇사람의 증언을 마치 사실인양 단정한 추측보도, 특종을 놓친 다른 언론사의 과속보도는 백선장과 공무원들의 제3국 망명을 기정사실로 만들었고 검찰의 수배를 촉구한 모양이 되었다. 그후 백선장의 시체가 발견되자 오보의 책임을 검찰로 떠넘기는 구태도 여전했다. 다만 결과적 오보임을 솔직히 반성한 몇몇 신문은 빼고는 이 사건에 대해 냉정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다시 이와 같은 상황이 등장하지 말라는 보장은 누구도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언론 현실인 것이다.

일인클럽 (One Person Club) advertisement with phone number 260-3491-2

지금 쓰레기?

언제부터인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던 쓰레기 분리수거. 국토는 좁고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자원을 재활용하는 의도는 매우 큰 것이었다. 인구가 늘어나면서 쓰레기는 점점 많아지고, 집단 이기주의가 팽배해져 있는 지금. 이를 해결할 방법을 강구할 수 밖에 없고 이런면에서 불매 쓰레기 분리수거 운동은 여러 면에서 매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선관위의 역할

10월의 마지막을 뜨겁게 달구는 선거가 한창이다. 27, 28일 이번 단과대 선거가 모두 끝나고, 동원선거와 총학생선거가 남게 된다. 늦은감이 있으나, 내년과 그 다음 선거를 바라보면서 이과대 선관위 활동을 하면서 이과대 선관위의 역할-활동방향에 대해 몇가지 적는다.

관위의 활동방향은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 있다. 만약 대학내 선거가 기존의 기성 정치인들의 선거와 똑같다면 선관위는 강제와 제재의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선관위를 향한 대학인으로서, 공명 선거 실현에 대한 믿음으로써 선관위는 후보들간의 타협과 조정의 매개자로서 위치 지워져야 한다. 그렇듯 쉽게 판단된 선관위는 한쪽의 지원부대로 전락하게 된다-이과대 선관위의 초기 모습이 이것을 예시하 증명한다. 후반기에 올바른 의사결정을 해준 선관위에 격려를 보낸다.

동학! 광장

Large community notice board with various announcements, birthdays, and events. Includes sections like '축하합니다', '알립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은방골', and '축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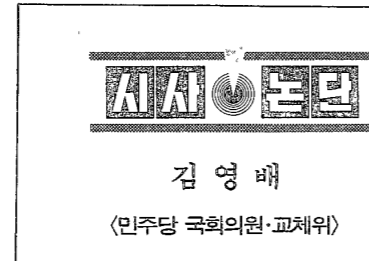
60년대 이래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국민의 이동성 증가는 막대한 교통수요의 증가를 유발하였고 이 교통수요 유발에 대한 현재까지 교통부담 시설투자는 미약했으며 또한 주로 도로부담 위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80년대 이래 전국 자동차 보유대수 증가와 동기간의 도로연장 증가율을 고려하면 도로망의 확충도 자동차 증가율에는 못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철도시설은 인구규모로 보아 일본의 1/3 수준, 프랑스 1/8수준 밖에 되지 않으며 철도의 경쟁력과 역량의 약화는 1981년 13%에 달했던 철도의 여객수송 분담률이 1988년 43%로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철도망은 가까운 장래에 그 용량 한계에 도달하게 될 것이며 철도부문의 투자증대는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는 교통수요 증가에 부응하고 국민소득 향상에 따라 고급교통수단 즉 쾌적하고 보다 빠른 교통수단을 선호하는 국민 의식구조 변화에 따라 적절한 교통서비스 수준을 제공하고 국토의 단일성 확립이 형성되어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시킨다 하여 경부고속철도 건설계획을 발표 시달하여 6월30일에 시정구간에 공사를 착공에 들어 갔으며 지난 8월에는 차량선정을 마쳐 불란서 TGV가 우선 협상대상으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경부고속철도 건설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더욱이 차량방식(바퀴식, 자기부상식)에 있어서는 현재까지도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고속철도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의하면

**투자효율성 측면**  
현 경부고속도로 교통량이 60%가 화물차이므로 여객수송보다는 화물수송에 대한 투자와 개선이 시급하다. 그러나 경부고속철도는 여객수송 전용이므로 화물수송에 직접 기여하지 못한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여객들이 고속철도를 이용하여 도로는 화물수송 도로가 될 것이라는 기대는 예측에 불과하며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이 소요된다고 하지만 승차차역에서 승객의 집까지 1~2시간 소요된다고 하면 고속철도의 의미가 없다. 즉 교통시설 확충이 시급하며 기존 철도가 극심한 체증을 보이고 있는데 서울(-)대전간의 복복선화가 시급히 실현되고 현 경부고속도로 나머지 구간의 확충이

더 시급한 실정이다.  
△경부선 철도의 경우-서울-수원 북복선은 이미 완료했으며, 수원-대전간은 약 7천8백억이며 복복선화 가능.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서울-청원간은 이미 확장 개통했으며 청원-화덕 구간은 1천억 원이 소요.  
즉 고속철도 예산의 20%의(예산비용) 1만 투자한다면 현 교통체증은 고속철도 운행과 맞먹는 교통체증 해소가 될 것이다.

**기술적 측면**  
기술적 측면에서 고속철도 문제점을



김영배 (민주당 국회의원·교체위)

획 (국가예산 4천8백억을 개발비로 투입) 하는 등 제3세대 고속철도를 위해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미 실용화 단계에 이르는 나라도 있다.  
국내기업들도 자기부상식 열차연구에 주력 1989년부터 1993년까지 4년간 기계연구원내에 자기부상 열차 사업단을 구성 1백m의 시범트랙, 5백60m의 EXPO 전시기동열차 개발되는 등 상당한 기술 축적이 이루어져 현재, 대우가 시속 1백50km까지 부상 열차를 개발했고 5년후인 98년에는 시속 3백km이상 실용화 가능 더구나 TGV경우 도입된 기술이전도

감안 해보면 최소한 공사비가 20조를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국력과 경제력 상황을 고려하면 이천문학적 규모의 재원확보에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고속철도에 따른 피해 예상**  
이러한 커다란 3가지 측면에 설득력이 없는 것 이외에 현재 시정구간(천안-대전)의 공사에 따른 주민의 피해 발생을 살펴볼때 정부의 피해대책이나 피해보상이 미약하여 공사가 전진에 확대될 때 피해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피해사태-발파에 따른 가옥균열, 붕괴위험과 사용동물의 유실 및 수백이 넘는 지하수농업용수의 고갈 등

또한 고속철도가 운행시 문제점을 살펴보면 소음진동에 따른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데 고속철도의 소음은 항공기 소음에 비견된다.

불란서 TGV가 제시하는 표지한 소음도는 86dB이다. 이는 김포공항 소음피해지역이 심한 (1등급지역 90dB-이주대상)곳에 해당되며 이 소음치는 환경과 지형이 다른 불란서에서 운행시 발생되는 소음치보다 산과 개천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만큼 소음이 유발될지 모른다. 게다가 공사비 절감에 따른 서울, 천안, 대전, 대구, 광주, 부산 6개지역의 노선이 지상화 하기로 결정 도시의 양분화는 물론 소음과 진동이 피해가 더욱 심화될 예정이다.

**고속철도 지원선정 의혹**  
불란서 TGV를 경부고속철도의 차량으로 선정 과정에서 환경의 의혹도 없었던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6차에 걸친 불란서, 독일의 제1차 내역과 평가 기준 및 정수 등 평가결과와 세부사항이 공개되지 않았으며 경쟁사였던 독일의 지멘스사는 선정과정에서 입찰가격, 계약조건 등 5개항목에 문제가 있었다고 의의를 제기하고 차량제작 세부과정과정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며 게다가 독일의 지멘스 그룹 회장 W.O. Martensen씨가 김영삼대통령에 보낸 공신 양 의서에는 대통령에게 "부럽게도 경쟁업체에게 협상 하려는 각하의 지사가 지켜지지 않았다", "프랑스가 한국정부의 특정세력의 지원을 받음으로써 확실한 이익을 취했다" 등과 같은 내용과 표현들로 항의서한을 공식 전달 하였다는 등 선정과정에서 불공정이 있었다는 지멘스사의 입장에 의미를 부여할 수 밖에 없었다.

# 낮은 기습 이전히 무엇하나

## 고속전철사업 재검토 돼야한다

살펴보면 현 정부가 선택한 차량 방식인 차륜식(바퀴식)은 20년전에 개발된 것으로서 자기부상열차가 실용화 단계에 들어선 오늘날에는 이미 기술수명이 다한 낮은 방식이며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불란서의 TGV제식인 알스톰사 스텔로도 제2세대 고속철도(시속 3백km)임을 인정하여 제3세대 고속철도(시속 5백km)개발을 추진하는바 지금 차륜식 고속철도를 도입한다면 완공시점인 10년 후에는 제3세대 고속철도에 밀려 구식 철도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선진국의 자기부상열차 개발현황을 보면 독일은 2002년까지 상용화선이 완공예정인 현재는 지난 84년부터 운전시작 각각 2차량편성 2백명이 탑승 최고속도 4백35km/h달성 5백km/h까지 가능하다. △일본-1997년 상용화선 확장예정 △미국-1992년부터 실용화 10개년 계획

이유어린다고 하지만 이는 그때까지는 낮은 기습에 불과하며 불란서의 인문은 핵심부품이전에 대한 우려를 제기 완전 기술이전에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는 건설과 운행까지 불란서 사람들에게 맡겨야하며 차후에 타국에 대한 고속철도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다.

**재원 확보 측면**  
정부가 발표한 고속철도 87년 총사업비가 불변가격 5조8천억 이었으나 그후로 노반공사단가 KM55억원에서 1백10억 원으로 증가했다가 또다시 1백42억 원으로 3배가 증가하여 최근 발표로는 10조 7천4백억 원이 된다.  
그러나 10년동안의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의 증액 그리고 이차분담등을 생각하면 이익수는 결코 많게 추산된 것이 아니다. 88년 처음 예상보다 5년도 못된지 금 공사비가 2배가 더증가 했다는 것을

### 경주캠 인접 통과 가능성

경부고속철도의 경주캠퍼스 인접 통과안을 주축자로 하는 고속전철인접공단의 입장이 전담된 이후 협교측은 이번 국정감사의 교통-건설 관련 위원회소속 국회의원들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노선변경 제의를 요청한 바 있다.  
이후 진행된 경부고속전철 및 신공항건설과 관련된 국정감사에서 본회의에서 요청한 경주 캠퍼스 통과와 저지대의 경주 노선 문제거론 이전에 부정의혹이 제기되면서 경부고속전철안 폐지론이 대두되었다.

교체위 소속 민주당 정성용 의원은 경부고속전철은 수년만 늦춰도 가능한 21세기 첨단기술인 자기부상식 고속전철 기술-시설이전이 가능해도 서울-프랑스 TGV와 기술이전 계약한 데 따른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정의원과 마찬가지로 현재 야당 의원들은 원천적인 경부고속전철의 제정등을 이번 국정감사중에 정

역감정 초래가 우려되며 시험구간에서 조차 나타난 공사의 문제점과 지역주민의 수많은 불편을 고려할 때 앞으로 공사는 문제 투성"이라며 자재한 검토없이 진행된 사업에 대해 비판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중에는 기술이전협자 선정 과정에서 나타난 프랑스 TGV에 대한 의혹들이 하나씩 제기되고 있다.

## 정부측 수정안에 경주노선변경 언급 없이 폐지 여론 확대로 악조건 타개해야

이 문제와 관련 국정감사지에서는 독일 지멘스사의 항의서안이 공개된 경부고속전철 사업자체 반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한편 정부측은 이러한 반대여론을 의식 경부고속철도 건설 계획 일부를 수정·발표한 바 있다.  
이 수정내용은 경부고속철도건

설사업의 준공년도를 당초 98년에서 2001년으로 3년 연기하고, 투자비 절감을 위하여 서울-대전-대구 지역의 지하역 신설계획을 수정, 기존의 지상역을 개량·활용토록 하며 안양-서울역간, 서울역-수서차량기지간의 지하선로 신설계획을 변경하여 기존 철도와 역사를 개량·활용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경주캠퍼스와 관련된 경부고속전철 도심구간 노선계획은 가급적 지하에 건설했다면 당초 계획을 수정, 지하선로나 지하역 건설이 지상건설에 비하여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어 투자비 절감 차원에서 이를지상으로 수정하였다. 그러나 본교 인접노선 35km지하

화 노선안은 경주 울동(북남동)역 신설을 비롯해 추진계획을 수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의향을 요구한 한 국회의원은 "타 지역노선이 기존역사를 사용하고 노선또한 기존 경의선, 경부선을 이용하는 데도 불구하고 경주지역노선 신설과 역사설치 및 경주캠퍼스 인접 지하노선을 정부가 고집하는 데는 지역 유지들의 유치전략이 작용했을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감사원은 공사비가 당초 5조여원에서 10조여원으로 두배가량 늘어났고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의혹들에 대한 감사를 27일부터 진행한다.  
이같이 국정감사가 끝난 지금까지 경주노선의 경주캠 인접통과안은 철회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저지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주 시장정당과 지역주민들과도 교육환경을 위협하는 노선안 철회투쟁의 정당성을 알려 지역 여론을 유도하는 것도 바람직하리라고 본다.

### 사설

## 학내 정화책 마련 시급

얼마전 언론은 대학의 비리를 폭로하는데 열중했다. 모 대학 부지에 학교측과 기업이 담합하여 산업폐기물을 버리고 있다는 보도를 내보냈다. 대학안은 깨끗해야한다는 사회적 통념을 겨냥한 대학 폭집대는 연이 언론은 흥미를 느꼈던 모양이다. 사건발고는 학교측의 입장은 고려대상도 되지 못했던 보도였다.  
관제언론의 사건화대들은 대학의 잘못된 사실이 곧 밝혀지겠지만 이 보도를 접하는 대학인들은 다사한한 자신의 교정을 둘러보게 된다. '우리학교의 환경은 이상무인가'하고 사실 최근 모든 대학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가 캠퍼스 환경정화다.  
수없이 남무하는 선전물, 대자보등과 이공대의 실험 폐기물, 한정된 캠퍼스에 1만의 사람이 쏟아내는 생활쓰레기들.  
이 문제는 이제 모든 대학의 골치거리가 되고 있으면 언론의 대학폭집 내기보도의 좋은 소재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위협의 대상에 본교도 예외는 아니다.  
한달 평균 70이라는 쓰레기 처리문제는 관계자들의 골치거리다. 언론이 무시위서가 아니라 학교 모양새가 흐트러질 상태까지 되었다.  
환경정 예산, 환경정 인력으로 학내 쓰레기를 말끔히 처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소차 2대가 학내를 돌며 이물어 한민들로 김포 정단 수도권 매립지로 운반하지만 재활용폐지, 철재류, 목재류를 비롯해 미술학과 실습이나 이공대 실험후 생기는 폐기물은 처리가 곤란한 실정이다. 어디도 이러한 쓰레기를 매립토록 허락하는 곳은 없다. 이공대 실험폐기물 처리는 지난 여름 인근 주민들의 악취·소음등의 민원이 잇따라 여타 방지시설을 완비한 정화조의 가동으로 그나마 문제소지는 없으나 폐기되어야 할 집기나 목재, 철재, 콘크리트 덩어리등은 주무부서인 관리처 나름대로 그때 그때 폐기처분하고는 있어 공극적인 대안마련이 시급하다.  
분리수거나 학교자체 소각로 설치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나서는 문제가 한 둘이 아니다.  
일단 분리수거할 마면이나 2천만원이 상회하는 소각로 도입에 대한 예산이 만만치 않다.  
물론 학내환경정화가 중차대한 문제임을 학교측이 감안한다면 예산지출을 해야 하겠지만 분리수거함이 쓰레기통으로 변화고가는 의식수준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일부는 시도로 끝날 것이 뻔하다.  
또한 분리수거가 이루어진다면라도 자원재생공사측에서 운반해갈 때까지 보관할 장소도 마땅치 않다.  
근본적인 의식개혁과 장기적 계획을 가진 예산투자가 실상 멀게만 느껴지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투입할 할 일이 아니다. 구성원들 나름대로 자그마한 실천을 시작해야 할 때다.  
학생들은 공공계시판을 이용하고 대자보에 기한을 명시, 시한이 넘어 자제수거하는 일부터 습관화하고 학생회에도 환경부행위의 부서를 편성해 해볼지도 한다.  
또한 강의실에 커피, 음료수를 반입하지 말고 휴지를 주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한편 학교측은 지속적인 홍보와 장기적 안목으로 계획과 예산을 편성하고 단계적으로 분리수거와 재활용을 담당할 요원배치등의 일을 현실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한다.  
'어렵다, 동공의 의식수준으로는...'하며 비판하기는 문제의 심각성을 의면하는 일일뿐이다.  
학교, 학생회모두 하나되어 작은 일부터 실천해야 할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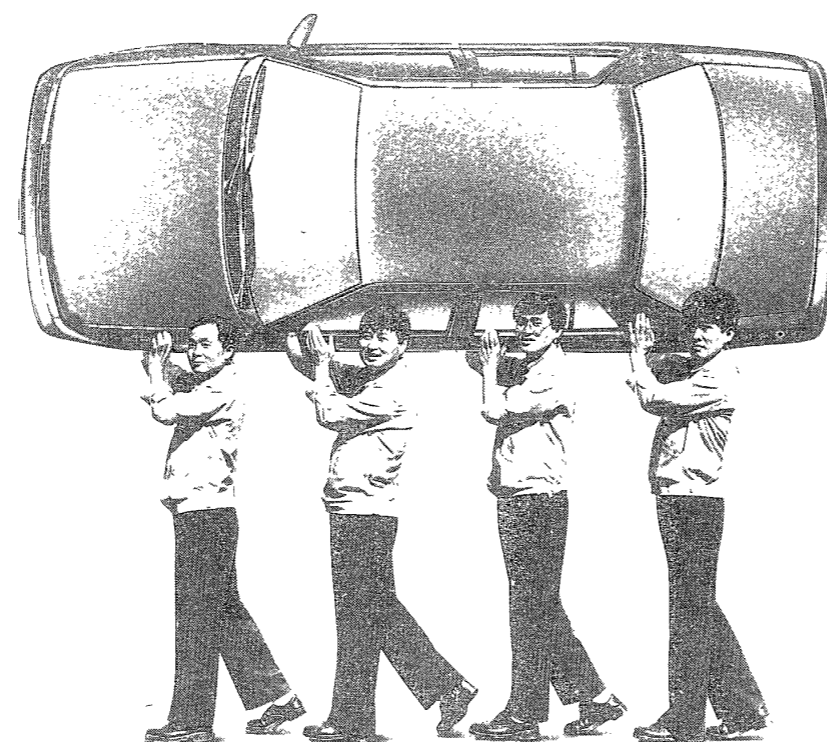
### 東國:漫評

김상남



(사회부)

## “자동차의 몸무게를 줄이는 사람들”



승용제품개발연구소 자동차 경량재료 연구팀

“우리 자동차도 이제 근살 좀 해야죠. 비만한 사람이 병에 잘 걸리듯 몸무게 무거운 자동차가 연료도 많이 들거니와 환경오염의 주범이거든요.”  
승용제품개발 연구소 자동차 경량재료 연구팀 박봉현 연구원-  
이처럼 자동차 몸무게를 줄일 수 있는 신소재 개발은 국내 자동차 산업의 가장 큰 과제이자 더 나아가 수출전선에서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그는 말한다. 요즘은 수출시장에서조차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선진국 수준에 맞는 새로운 자동차를 만들지 못할 경우, 수출 판도가 막혀버리는데...  
최초는 훨씬 가볍지만 그보다 충격에 강한 신소재는 없을까? 고민하는 동안 자신의 몸무게까지 줄었다는 자동차 경량화 사람들-  
무한대의 잠재력과 비전을 지닌 오늘의 현대맨들이다.



### 복직 선언이후 전교조의 진로 모색

# 복직은 전술적 결단 '전교조 해체 아니다'

89년 5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하 전교조) 결성 이후 4년, 아니 85년 교육민주화 선언이 있고 나서 한국 교원 노조 운동에 중추적인 역할을 지니는 결단이 지난 15일 있었다. 모든 결정을 위임받은 정혜숙 전교조 위원장의 '전교조 탈퇴'를 전제한 해직교사 복직 관련 특별담화가 그것이다. 이를 두고 '교내 안 결단' 전술적, 정책적 결단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뜨거운 불씨를 안고 원점으로 돌아가고자 한 나의 '기막힌 결단'이었다"라는 정혜숙 위원장의 말에서 드러나 듯 이번 해직교사 복직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은 우리 교육계에 강렬한 파문을 던질 것으로 보인다.

#### 이슈와 설레임 교차

15일 발표가 있기 전까지 전교조는 대외적으로 '조진 없는 복직을 위한 결사 항전'을 선포해 놓고 있었다. 실제 지난 9월 28일자 모 일간지에서 '전교조 10월말 전원 복직 결정'이라는 기사가 나가자 '결코 그럴 수 없다'며 10월 15일부터 지도부 무기한 단식, 교육개혁과 복직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을 발표하면서 반발해 왔다. 또한 전교조가 국제 교원 노조 총연맹(ITD)의 승인을 얻어 국제적인 인정을 받게 되는 분위기가 었다. 여기에 이번 결정은 '외의로 받아들이지'도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10월 말에 전교조가 복직을 둘러싼 교육부의 공방전이 지지부진할 경우 무기한 결단을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어 어느정도 예상된 일이었다.

이번 전교조의 판단이 있는 직후 여러 교사를 사이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었었다. "전교조는 해체되지 않고 복직을 한다. 전교조의 성과물이다. 전국 교원의 80%를 현

직이 차지하고 있기에 전교조 약화라는 말은 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리라 본다." 전교조 이준규 해직교사의 말이다. 한편, 서울 초중고직교사 상근 집행부는 "탈퇴자서를 쓰게 되어 명예롭게 복직하지 못하는 것이 또 한번의 한으로 남을지 모르겠다"라며 이번 결정에 최소한의 공정을 보였다. 그럼에도 그는 조직의 결정에는 가급적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실제로 지난 15일 발표가 있는 후 해직교사들은 '이취음, 설레임' 때문에 술과 토론으로 밤을 지새웠다고 한다.

#### "자신감에서 나온 결정"

한편, 이번 결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가 조신하게 제기되고 있다. 먼저 전교조가 '교사로 돌아가서' 어떠한 교육개혁을 펼칠 수 있겠는가, 현재와 같은 교육 현실 앞에서 전교조 탈퇴서를 내고 전교조 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 흔히 제도 언론에서 공박하는 '도덕성'의 문제다. 둘째로 교원 노조 합법화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현실적, 정책적 선택이었던 전교조에게는 '교원 노조 합법화'라는 명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하는 물음이다.

이러한 물음에 전교조 정책위원회 이수일씨는 "현단계에서의 복직이 이중적 의미를 규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답한다. "하나의 현직교사들의 집행력이 해직보다 현재 활동할 수준이다. 또한, 전교조는 현장 대중조직이기 때문에 교단에 해직교사가 설 때 전교조의 내용이 더욱 풍부해질 것이다." 또한 그는 "대선 이후 합법화의 문제는 중장기적 과제로 남겨두면서 이전의 '합법화'와 '복직' 두 면에서 '교육개혁, 복직' 쪽으로 변화하였다. 실제 합법화는 전교조가 교육 개혁으로



전교조 정혜숙 위원장은 '전교조 선포 후 복직' 요구를 수용 대다수 해직교사가 복직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는 특별 담화문을 발표했다.

40만 교사들의 지지를 받아오는 과정에서 실현될 것이라 본다. 이는 그리 멀지 않았다. 전교조가 교육개혁 선택임을 부인하는 곳은 교육계 외엔 없다. 전교조의 국제적 인정과 함께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라고 말한다. 덧붙여 이용한 해직교사는 "전교조가 교단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평균 한사람당 2명 여명의 학생과 관계를 맺으면, 3집만의 학생을 전교조 교사가 가르치게 된다. 교육계의 큰변화가 일 것이다. 전교조는 그러한 자신감이 있었기에 고쳐서 한 결단을 내렸다."라고 강조한다.

#### 노동조합 성격 분명히 하라

대부분의 사회단체들은 전교조의 결단이 아쉬움과 함께 ' 환영'을 표하고 있다. 또한, 교원노조에 대한 강경적 태도 일련의 결정상 정부의 보수성을 규탄하였다.

한편으로는 전교조에 이러한 부각을 하기도 한다. 진보정당 추진위원회의 노동국장 김태환씨는 "대국민적인 인식이 아직은 교원 단체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전교조의 한계인 것 같다. 전교조가 노조로서의 제 역할을 할 때 합법화의 문턱도 접근하기가 쉬울 것이다. 이번 결단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되는 부분들을 전교조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실제 교사들이 노동자의 색이 미약한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교조 정책실 운영생는 현장활동 속에서 노동자의 의식을 더욱 높여 줄 수 있으며, 교원노조 운동과 교육개혁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기에 항상 염두에 둘 것이라고 말한다.

하루된 해직교사들은 내년 3월 학교로 돌아간다. 해직교사들의 아픈 생활이 마감된다는 측면에서 복

직결정에 대한 의미도 크다. 그러나 이번 복직이 최선의 선택은 아니었지만, 또다른 출발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에서 의미성을 찾을 수 있었다. 어떻게 전교조의 약화가 아닌 결과적인 발전으로 이끌 것인가, 교육개혁은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하는가, 노동조합으로서의 성격을 국민들에게 인정받고 합법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등 신중할 많은 문제가 있다.

말이 좋아서 '전일교육'이지 '영양'이 최우선 가치로 인정받는 한 교육공포도에 전도된 노동관, 공동체의 파괴를 막아내는 진정한 교육은 이제 그 구체적인 것들을 내뱉게 될 것인가, 전교조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요구된다.

(사대기원 남부지부 사회학집문과 공과민)

### 인터뷰



#### 정혜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지난 15일 전교조 탈퇴 후 일괄 복직하겠다는 내용의 '해직교사 복직에 관한 특별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이에 정혜숙 위원장을 만나 결단의 계기와 이후 방향·전망에 대해 들어보았다.

—4년간의 전교조 활동의 성과를 정리하면

—전교조와 함께 했던 각 부문 단체의 성원에 힘입어 '명실 상부한 교육민주화 실천'의 대안 세력으로 자리잡았다. 또한, 실제로는 비합법 단체이지만 지난 4월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단체교섭권을 사실상 행사하여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인정받는 세력이 되었다.

—전교조 탈퇴 후 일괄복직을 결정하게된 계기는

—여러 차례 정부 기관장들과의 면담을 통해 교육이 있어 개혁의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협상은 불필요하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하였다. 이제 교육 현장에서 참교육 실천 사업을 펼칠 것이다. 또한 전교조를 탈퇴하더라도 조직원들이 조합 활동을 계속 할 것이라는 믿음과 자신감에서 이번 결정은 이루어졌다.

—현장에서의 교육개혁이 김영삼정부에서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그 계획은

—정부는 대중의 힘에 의해 유지된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국

민 의식 변화가 절실하다. 아직까지 구체적 계획은 없으나 이전까지 전교조 회원의 80%가 현직 교사였으므로 단기간적인 활동이 아니라 입시제도의 구조적 모순을 타파하고, 지속적으로 교원사업, 교과 운영면에서의 개혁을 이루어 낼 것이다.

—전교조 합법화가 시간문제라 하였는데 그 근거는

—전교조는 얼마전 정부와 교총의 방해공작에 불구하고 세계 교원 노조에 가입하였다. 이것은 세계가 인정하는 전교조를 국내에서만 불법화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교조가 교육개혁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해직교사가 참교육의 파수꾼으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합법화는 시간 문제라고 본다.

—전교조의 복직 방침에 대한 각계의 반응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안에 부분 단체 대표들에게는 통보 했는데 대체로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풀이 아니라 구체적인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더 힘있게 가고자 하겠다.

—명분상으로는 이유로 조직 내의 이견이 존재한다고 들었는데

—조직 내에서도 충격이 컸다. 놀라움과 눈물로 진박을 보냈다. 그 눈물은 명분과 자존에 대한 상실이 아니라 이 시대의 한계에 대한 통탄과 분노였다. 개인적인 정서 때문에 '한이 남아' 반발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이 결정이 '전술적' 의미로서의 결정을 이해하고 따르리라 생각한다.

—교사가 노동자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었는가

—우리사회는 노동을 천히 여기고 노동 운동하면 불순세력으로 취급받기 일췌하다. 참교육은 삶의 기쁨이다. 교사 자신이 노동자적 자세를 갖지 않고 어떻게 제자들을 이끌고 나갈 수 있었는가, 아이들에게 능력에 맞는 일에서 사회 봉사 할 수 있는 노동권을 심어주고 싶다.

—이번 결정에 아쉬움을 표하는 대학생들도 많다. 대학생들에게 한마디

—단편적인 것만을 생각한다면 끝까지 명분을 지켜야 했지만 정책적인 결정이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를 바란다. 항상 자존심을 내세울 수만은 없다. 진전을 위한 일보 후퇴로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전교조를 사랑해주기를 바란다. (김소영 기자)

### 동약로

"지금 읽고 앉으시는 방식(?)이 어떠한 유품인줄 알고계십니까?"

도서판와 야외에 전시된 유품들은 커피잔을 들고 다정스레 담소를 나누고 있는 어느 두 학우에게는 한적한 공원의자 정도로 인식된 모양이다.

경주지역 유품들에 대한 학우들의 애착심을 고취시킬 목적으로 박물관에 의해 조성된 야외전시장은 현재 어떠한 개시판도 판사의 손길도 없이 무성하게 자란 점초들속에 방치되어 문화재 사관에 지극한 이들로 하여금 안타까운 심정을 자아내게 하고있다.

야외전시장의 초라한 모습이 말해주듯 박물관의 위상 또한 저급한 상태다. 현재 박물관(관장=황상주·미술관)은 조교 한명, 조

### 야외전시장

무 한명으로 구성된 박물관 전시실(도서판 2층)을 일주일 4회, 하루 2시간씩 개방하고 있을뿐 문화유적연구활동은 미비한 실정이다.

10년째 조무직을 맡고 있는 정향란씨는 "현재 인원으로서는 지난 86년에 발굴된 석장사지유적지에 관한 보고서 작성만도 급급한 실정입니다. 매년 학교측에 연구원

### 컴퓨터이야기

선택 3시

특특, 주변의 정적을 깨는 소리가 들린다. 누군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모니터를 바라보며 열심히 키보드를 두들겨댄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생소하게만 들리던 컴퓨터 통신을 하는 모습이다.

PC와 값싼 모뎀(Modem)의 보급에 힘입어 컴퓨터 통신 인구가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어 어디서나 쉽게 컴퓨터 통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정도다.

전화로 통화를 하는 것과 같이 컴퓨터간에 전화를 통해 정보를 주고 받고 이야기나 편지를 주고 받는 것이 컴퓨터 통신이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인터넷과 PC-Serve 등이 있다. 사용자는 PC에 장착된 모뎀을

### 컴퓨터 통신의 효용

#### 기차표, 예매부터 속보까지 편의 제공 동호회, 여러계층 사귈수 있어

전화선에 연결하고 원하는 곳으로 전화를 걸어 접속한 다음 제공되는 여러가지 서비스를 사용한다.

컴퓨터 통신의 대표적인 서비스로 동시에 많은 사람과 편지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전자우편(E-Mail)은 편지 쓰는 것을 싫어하고 있는 신세대에게 새로운 흥미를 불러 일으킨다. 기차표, 비행기표, 연극 영화 공연 예매, 상품 구입 등은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해준다. 여러 신문사들의 데이터베이스도 연결되어 있어 신문보다 빠른 속보를 알 수 있고, 구직광고등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컴퓨터를 통해 여러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 최은혁

(대학원 컴퓨터 석사과정)

이런 컴퓨터 통신을 통해 방안에 무겁게 두게 잡고 있던 컴퓨터라는 기계가 좀 더 인간에 가까워지고, 다른 여러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방안에 컴퓨터가 보다 넓은 곳으로 가는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요즘 가을 바람이 차가워져서 컴퓨터 통신을 통해 새로운 만남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컴퓨터 통신이 당신에게 성큼 다가와 있다. 자- 이제 당신의 미래를 위해 컴퓨터 통신의 세계로 날아가 보자.

### 국민과 함께 세계로 도약하는 기업-삼성

인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환경을 소중히 여깁니다.

\*컴퓨터도 이제 인간의 건강과 보다 쾌적한 환경을 생각해서 만들어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앞선 반도체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삼성전자의 최첨단 그린테크놀로지가 추구하는 정신입니다.

컴퓨터 본체는 물론 모니터와 HDD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그린화를 실현시키는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컴퓨터 한 대를 만들더라도 인간과 환경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린 속도 확장 그래픽**

- 초월된 및 유해물질 제원
- 저소음원 작동
- 재활용가능 포장박스 사용
- VESA 규격에 2Slot/1Slot
- 128MB의 외부메모리 장착
- 인텔의 BIOS 채택
- 5MB의 드라이브 장착
- 7개의 확장슬롯 5개의 Bay 제공
- SCSI 호환 내장
- 3.5, 5.25 FDD 2개 장착
- 170-250MB의 대용량 HDD 내장
- 올트라 VGA 기본 1MB 내장
- 윈도우즈 3.11/3.11x 채택
- 마이크로소프트 한글 윈도우 탑재

**삼성그린 컴퓨터**

9개월 무이자 할부판매

기술의 힘으로 세계를 겨루는 **SAMSUNG** 삼성전자

### 〈하반기 기업채용 전망과 취업준비〉

# 취업방법 천차만별...정보활용 중요

다들부터 각 기업체들의 신입사원 채용시절이 실시됨에 따라 본격적인 취업시절을 맞게 되었다.

특히 올해는 여러가지 이유에서 취업이 가중되고 있어 취업준비생이 취업부서까지 다각적 지혜를 짜야 할 전망이다.

하반기 취업전망을 살펴보면 50대를 채용규모는 1만5천여명으로 전년보다 20%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인문·사계 학생들이 선호했던 국영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은 올해 아예 채용을 하지 않거나, 채용규모를 크게 줄이고 있다.

또 꾸준히 성장세 보이던 중소기업들이 예년에 못되는 신규인력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 되고 있다.

한편 경제적 여건이 불리해지고 고교인력을 요구하는 업종이 있고, 내년 5월부터 시작되는 CIV 분야는 1천여명에 가까운 인력의 채용과 신규인원을 기다린다.

정보통신, 전자, 전기, 컴퓨터분야는 수급과 내수면에서 성장세를 지속해 채용 전망을 밝게 주도하는 업종이라 하겠다.

또 예년과 마찬가지로 보험업이 업종별 중심으로 채용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자동차의 내수경쟁도 역시 영업직의 문호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건설이나 유통(油), 섬유 등은 경제침체로 다소 여유가 있으나, 사정은 최소인원만 보충하는 곳 이 많아 우물한 업종으로 분류되고 있다.

특히 조세에 따르면 우리 대학생들이 취업조건으로 보수보다는 기업체의 성장, 발전성을 더욱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기업 입사후 1년미만 전직자수

가 적지 않으며, 기존 직장인 절반 이상이 전공 및 직성이 맞지않아 가능하면 전직도 고려해보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그만큼 직장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일깨워주고 있다.

취업이 어렵다고 해서 아무직장이나 들어가고 보자는 학생도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평생을 몸담으면서 자신의 가치를 실현할 직장을 선택하는데 소홀한다면 그 피해자는 곧 자기 자신임을 유념하지 않으면 안된다.

일반적으로 좋은 직장이라 함은 업무가 자기적성과 맞아야 하고 강령, 안정성과 함께 급여, 후생복지, 승진기회 등의 근무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학생들이 직장을 선택해야 할 문턱에 있는 사람에게 '첫단추'는 이래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신이 원하는 취업을 무난히 통과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여기에서 고려된 사항이 취업정보의 최대한 활용이라 하겠다.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해놓고서도 정보를 제대로 입수하지 못해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가 희망하는 회사가 결정되었으면 다음으로는 채용방법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다.

요즘은 채용방법에 있어서도 회사별로 천차만별이다.

회사는 서류전형 및 필기시험과 면접을, L회사는 서류전형과 면접을, D회사는 필기시험과 면접을, 또 필기와 면접이외에 적성검사-인성검사를 요구하는 회사도 있고, 토론회와 토의점수를 반영하는

회사도 있다.

이처럼 채용방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부담을 안게되는 쪽은 수험생이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는 문제가 아니다.

입사시험에 있어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로는 면접을 볼 수 있다. 면접은 필기시험이나 서류전형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인물의 됨됨이, 즉 성격이나 직업관·인생관·경제적 능력을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이다.

최근 각 기업들이 면접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회사운영의 실체는 영업이기 때문에 기획·관리 부서의 몇몇을 빼고는 활동성, 적극성이 뛰어난 인재를 회사에 살릴 수 있다는 시각에서이다.

이때부터 면접방식도 개인면접, 집단면접, 집단토론식 면접, 영인 인터뷰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는데 대비해야 한다.

또 대부분의 기업들이 인성·적성검사를 활용하고 있으며, 그 반영비율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도 유의해야 할 점이다.

이러한 점에 취업의 왕도는 주도면밀한 대응이 요구되어진다.

그러나 취업준비생이 취업정보를 활용하고 있으며, 그 반영비율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도 유의해야 할 점이다.

이러한 점에 취업의 왕도는 주도면밀한 대응이 요구되어진다.

그러나 취업준비생이 취업정보를 활용하고 있으며, 그 반영비율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도 유의해야 할 점이다.

이러한 점에 취업의 왕도는 주도면밀한 대응이 요구되어진다.

이상은 유지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자기전공에 맞는 자격증을 따는 일이다. 이는 일정한 능력이 있다는 의미로서 취업준비생이나, 취업이 결정되고 나서도 유리한 카드가 작용하게 된다.

셋째는 국제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외국어능력의 향상이다. 특히 면접시 외국어와의 직접 대화에 대비한 회화는 필수적인을 잊지 말아야겠다.

넷째는 취업정보의 적극 활용을 말하고 싶다.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짜리 백번 이긴다"고 했듯이 남보다 빠른 정보는 그만큼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되어진다.

이와관련 학교당국에서는 이미 취업정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고, 특히 이번 2학기부터는 음성통신과 계약, 또 단과대학별로 컴퓨터 단말기를 이용해 취업정보를 신속히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다만 반이나나 각 기업체에서 의미 취업정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고, 특히 이번 2학기부터는 음성통신과 계약, 또 단과대학별로 컴퓨터 단말기를 이용해 취업정보를 신속히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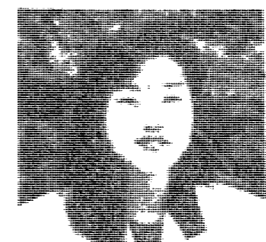
이와관련 학교당국에서는 이미 취업정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고, 특히 이번 2학기부터는 음성통신과 계약, 또 단과대학별로 컴퓨터 단말기를 이용해 취업정보를 신속히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와관련 학교당국에서는 이미 취업정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고, 특히 이번 2학기부터는 음성통신과 계약, 또 단과대학별로 컴퓨터 단말기를 이용해 취업정보를 신속히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와관련 학교당국에서는 이미 취업정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고, 특히 이번 2학기부터는 음성통신과 계약, 또 단과대학별로 컴퓨터 단말기를 이용해 취업정보를 신속히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와관련 학교당국에서는 이미 취업정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고, 특히 이번 2학기부터는 음성통신과 계약, 또 단과대학별로 컴퓨터 단말기를 이용해 취업정보를 신속히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와관련 학교당국에서는 이미 취업정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고, 특히 이번 2학기부터는 음성통신과 계약, 또 단과대학별로 컴퓨터 단말기를 이용해 취업정보를 신속히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 조그만 실수 연연하지 말라 단정한 몸가짐은 '기본'

힘든 관문들을 통과해온 능력있는 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있듯이 가장 분명한 것은 적당한 크기의 도톰한 말투로 소신을 밝히는 것과 면접장 출입시에 위원들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이다.

그 외에도 질문은 끝까지 듣고 질문이 끝난 후에도 잠시 생각해보는 후(23초 정도)에 답변하는 것 등이다.

나의 경험을 비추어서 얘기하라면 당일 우리회사는 모두 강당에 모인 후에 5명씩 대기실로 들어갔다. 모두 잘 알고 계시겠지만 회사에서 마추시는 -의식을 하든, 못 하든- 직원들 중 면접장에서 면접위원으로 앉아있을 가능성은 다분하므로 항상 경순하고 단정한 몸가짐을 갖추는 것은 기본이다.

대기실안에서는 인사부 직원들로부터 지시사항을 일괄적으로 듣게 되었다.

내용인 즉은 면접실 안의 구조에 대한 설명과, 먼저 들어가서 설명과 수험번호를 밝힌 후에 의자에 앉아서 면접위원들로부터 질문을 받으라는 내용이었다.

너무 태연하게 보이는 것보다는 약간의 긴장을 갖고 의욕을 보이는 것이 알맞으리라 생각된다.

나의 경우는 무난한 편은 아니었다. 차례가 돌아와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발걸음이 힘이었다고 따뜻한 한마디의 말을 들은 것이다.

물론 그 말을 듣고 초년부터 당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 말은 어쩌면 나를 시험해보기 위한

것이라고 나름대로 해석하고 매 순간 정성을 다하여 답변하려 애썼다.

결론의 내용은, 특이한 것은 없었으며, 지양동기 가족소개 등등 대체로 평이한 내용이었다.

자기도 생각해보면 당시 내 앞에 둘러싸여 있던 박자의 면접위원들이 무슨 생각을 하였는지도 모르겠지만 이미 여러분들은 그 전과정을 거친 분들이니 충분히 그 회사에 입사할 능력이 있는 분들이다. 제발 이 점을 명심하시라...

나중에 입사동기들의 후담을 들으면 여러가지 에피소드도 많았었다.

인사도 않고 의자에 앉았더니, 아니면 하물며 수험번호를 반복하였느냐 하는 것 등이다. 약간의 실수가 그 사람을 채용하느냐 안하느냐에 치명적인 점은 될 수 없다.

특히 우리 여학생 여러분! 사회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십시오...

적극적인 태도가 면접위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두서너개 얘기가 이어졌고 남보다 더 도움이 될만한 내용도 아니므로 마무리가 부끄럽기는 하지만 이로써 단락을 사랑하는 한 선배의 글을 마칩니다.

송정희 (동서증권 근무·가교 93출)

현재의 추세는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지적수준을 측정하는 필기시험 성적보다 그 사람의 됨됨이를 탐지해 볼 수 있는 면접시험이 중요한 관문이 되고 있다.

면접시험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전문적으로 바뀌어서 집단토론 등을 실시하는 기업도 점점 늘고 있고 면접시에 적성, 인성검사도 함께 실시하는 기업이 대다수다.

일반적인 개별면접의 경우에 기껏해야 10분도 안되는 짧은 시간안에 어떻게 나의 능력과 포부를 밝히고 동시에 면접위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나 하는 것이 과제였다.

면접시험 날짜를 통고받은 후부터 면접시험에 대한 내용을 담은 책자를 무척이나 많이 뒤적거렸었다.

아무쪼록 어려운 취업난 속에서 여러분의 성공적인 사회진출로 개인적인 보람, 국가사회에 이바지 하는 보람을 함께 누리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문기곤 (학생회 취업과장)

면접시험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선배의 경험담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보여야

단점도 솔직히 드러내는 용기 필요

진학이나 취직이나의 갈림길은 캠퍼스 생활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중요한 고민거리중에 하나다. 진학을 가슴속에서 지우고 취직전선에 돌입했을 때 나의 해피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때야말로 험난한 장벽속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실제 겪었던 것 같다. 여 러번의 실패 후 내마음에 꼭 드는 직장을 잡았다. 그것도 졸업이전에.

사회는 젊은이들의 패기와 합성을 요구하는 것 같다. 젊은 사람에게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시대를 짐작하기 싫어하는 것 같다. 건전한 사고방식, 도전적인 젊음, 활력, 성실감 이런 소재들은 그들이 사회적 재생산의 필수적인 재료가 되는 것 같다.

우선 면접에 임함에 당당해야 할 것 같다. 복제된 지식을 수룩한 기계적 두뇌보다는 원시적인 생동감을 발휘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과만

이 지닐 수 있는 당당한 분위기를 가진 사회에서는 제일 믿음직스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같다.

자신을 솔직하게 관찰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자신의 장점을 부각 시켜서 특정집단에서 요구하는 상품적 가치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자신의 단점도 약간 드러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평소 애 커리던 단점도 들을시킴으로써 인내를 지닌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다.

졸업서 원복해 진다. 단, 그 집단에서는 그 사람이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사실 완벽한 인간이 있을 수 있을까?

I can do everything'을 잊어서는 안되겠다. 겸손과 불리성, 주저함과 깊은 판단력, 이들은 회사 중역진들의 차지이다.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신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무기인 것이다. 이러한 자신감을 강렬히 바치는 사람이 사회적 재생산의 필수적인 재료가 되는 것 같다.

11월 1차 공채이후의 취업정보에 민감할 필요가 있다. 자신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2000년 10월 27일 (수요일) 5페이지

## 단과대 학장에게 듣는다

14 법정대 김영중 학장

“고시반 시설확충 -후원회 정착으로 학업분위기 조성할 터”

“법정대의 설립취지와 교육목표는

법정대 학장 김영중(행정학) 학장을 만나 그의 교육관과 앞으로의 발전계획에 대해 들어본다.

법정대의 설립취지와 교육목표는

법정대 학장 김영중(행정학) 학장을 만나 그의 교육관과 앞으로의 발전계획에 대해 들어본다.

법정대의 설립취지와 교육목표는

법정대 학장 김영중(행정학) 학장을 만나 그의 교육관과 앞으로의 발전계획에 대해 들어본다.

법정대의 설립취지와 교육목표는

법정대 학장 김영중(행정학) 학장을 만나 그의 교육관과 앞으로의 발전계획에 대해 들어본다.

법정대의 설립취지와 교육목표는

법정대 학장 김영중(행정학) 학장을 만나 그의 교육관과 앞으로의 발전계획에 대해 들어본다.

법정대의 설립취지와 교육목표는

법정대 학장 김영중(행정학) 학장을 만나 그의 교육관과 앞으로의 발전계획에 대해 들어본다.

법정대의 설립취지와 교육목표는

법정대 학장 김영중(행정학) 학장을 만나 그의 교육관과 앞으로의 발전계획에 대해 들어본다.

법정대의 설립취지와 교육목표는

법정대 학장 김영중(행정학) 학장을 만나 그의 교육관과 앞으로의 발전계획에 대해 들어본다.

법정대의 설립취지와 교육목표는

법정대 학장 김영중(행정학) 학장을 만나 그의 교육관과 앞으로의 발전계획에 대해 들어본다.

법정대의 설립취지와 교육목표는

법정대 학장 김영중(행정학) 학장을 만나 그의 교육관과 앞으로의 발전계획에 대해 들어본다.

법정대의 설립취지와 교육목표는

법정대 학장 김영중(행정학) 학장을 만나 그의 교육관과 앞으로의 발전계획에 대해 들어본다.

## 안 내

명사초청강연회(청년만해강좌) 및 추계 명찰 순례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기에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명사초청강연회

가. 정의의 실천과 인간의 회복

초 청 연 사: 이문옥(전 감사관, 전국교원노동조합 총동맹장)

시간 및 장소: 10.27(수), 15.00 중앙당

나. 전환기를 맞이한 한국민주주의의 전망과 과제

초 청 연 사: 김근태(국민회의 전 집행위원장)

시간 및 장소: 11.3(수), 15.00 중앙당

건축이념 구현을 위한 추계 명찰 순례

가. 장 소: 백양사, 내장사, 금산사

나. 일 자: 11.5(금), 15.00~11.6(토), 19.00

다. 참가대상 및 인원: 학생, 교수, 직원(신청접수순으로 90명만을 모집)

하위 교수 및 직원은 20명 이내)

라. 접 가 비: 5천원

학 생 처 장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서 접수

'93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한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서를 다음과 같이 접수함

다 음

1. 대상: '93학년도 전기 졸업 예정자 중 사범대 학생 및 교직과정 이수자

2. 자격 가. 교직과정 이수자 명단이 교육부에 제출된 자

나. 교직 및 전공과목 성적이 각각 평균 80점 이상 가능한 자

3. 접수기간: '93.11.22(월)~11.24(수)

4. 제출서류: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서 1부 (소정양식)

5. 배부 및 접수처: 사범대학 및 이부대학 교학과 ※유의사항: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서 미제출자는 교원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음

사 범 대 학 장

## 취업특강 안내

'94학년도 졸업예정자의 취업을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관한 취업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학생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아 래

1. 내용: 중소기업 취업에 관한 설명회

2. 대상: 졸업예정자 및 재학생

3. 일시: 1993.11.10(수) 14:00~16:00

4. 장소: 동국관 L301

5. 주최: 학생처 취업과

※당일 자료집 배부함

학 생 처 장

## 전용회선사용방법 변경안내

10월25일부터 서울-경주간 전용회선 사용방법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안내하오니 사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용개시일: 10월25일

2. 변경내용: 기존전용회선 1회선을 R/D(교환방식)-1회선, E/M(직접다이얼식)-3회선

3. 사용방법: 경주전화번호(국번없이 구내번호)를 직접다이얼함에 경주관제과 시설계의 구내 전화번호가 2081년 이므로 직접 2-0-8-1를 다이얼하면 경주관제과 시설계가 호출함.

관 리 처 장

## 여기 조용한 동국 사랑의

실천이 있습니다!

학교채권발행안내

발행목적: 교육환경개선(도서관, 실험실, 습기차제거, 교육시설확충)을 위한 재원 확보

발행단위: 5만원권, 10만원권, 50만원권, 100만원권

금리: 무이자

매입처: 조흥은행, 서울·경주캠퍼스 경리과

구좌명: 313-03-001769(조흥은행)

학교법인동국학원 이사장 오인갑

상환시기: 재학생은 졸업후, 동문·대학원생은 2년후

안내처: 기획조정실 기획과(02-260-3019), 기획홍보과(0561-770-2019)

기 획 조 정 실 장





# 동학가사...혁명의 사상적 발로

## 민중문화의 포교방편으로 이용된 울문 인내천—평등사상 물어낸 서민가요

### 1 동학가사에 깃든 사상

우리민족의 많은 문화유산 가운데 서민적 문화는 그것이 유행이든 무형이든 전해 내려오는 것이 거의 없다. 그것은 귀족문화와 달리 기록에 의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주를 중심으로 우리 조상의 민중문화를 발굴해보고자 한다. (편지자)

동학의 사상적 발로이자 문학적 표현물이 동학가사임을 주장하는 바다.

본고는 동학가사에 담겨있는 동학사상을 인지하여 당시의 시대상을 알고 나아가 한국 근대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를 살피고자 한다.

먼저 동학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9세기 중엽 동학이 쌍불수 있기까지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이 설명되어야 하겠다.

19세기 초엽부터 시작된 의적·세도정치는 한 세기에 걸쳐 극에 달해 삼정의 문란을 초래했다. 이런데다 한말 여객이 속수무책이었다. 실상가상으로 흥사·괴사 등 요인·결원이 유혈하고 절반(窮乏)·화적이 횡행하여 사회가 극도로 불안한 상황이었다. 급기야 절종조 말년에 이르러는 삼남 일대에 민란이 일어나고야 한다.

국내의 제반 위기상세에 모친적으로 19세기 이후 서서동점의 민족적 위협속에서 국가보위의 의식이 팽배하고, 주책(주교)의 도전을 민족적 주체사상으로 응전하려는 의식의 와중에서 동학이 창도되었다.

동학의 창도인 경주 향반 출신 수운 최제우(1824~1896)에 의하면 1830년 4월5일 동학이 창도된 것이다.

포말린가 잠일린가 천지가 아득해서 정신수습 못할테라 공중에서 외는소리 천지가 진동할때 (안심가)

무극대도를 하남읍으로부터 천소 받으니이 밝게 드러나신 천도(天道)이니 순수한 한국종교이며 우리 민족의 얼과 슬기가 담겨져 있다.

용담유사(龍潭遺跡)는 동학의 경사(經史)로서 일반대중이 알기 쉽도록 제세주에서 직접 제작한 한글 가사이며, 한문으로 이루어진 '동경대전(東經大典)'과 더불어 동학의 기본 경서이다.

중지(宗旨)는 '사람이 곧 하늘이니 사람을 하남과 같이 섬기라'하시어 인간의 존엄



◇ 인간평등·민본 사상으로 민중속에 자리잡았던 동학은 자주근대화의 버팀목이었다. 사진은 동학의 산실인 경주 울당정.

성과 민권(民權)의 존귀함을 강조하였고, 또 '나라를 들고 국민을 다 잘살도록 힘을 역설하여 그 계책을 제시하고 있으니 동학은 애국 애족의 국민 종교이다.

동학가사(용담유사)는 그 내용상으로 보아 수운 자신의 생애와 가문에 관련된 용담가·안심가·교훈가·몽중노수문답가와 제자들에게 대한 훈계, 설교를 위해 지은 도수사·권학가·도덕가·흥비가 그리고 조급 특이한 절경, 아홉편이 실려있다.

그렇다면 왜 수운은 가사라는 장르를 택하여 풍자를 했을까?

그것은 첫째, 당시에 가사가 일반에게 널리 보급되었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겠다. 초기 가사는 서정적 내용을 주로 노래했으나 후기가사에는 일상사 모든 것이 가사속에 표현되고 이 이른 시대적 영향 때문이었다. 둘째로 종교의 교훈(포교의 방편)을 가계로 활용한 점이다. 유교의 교훈을 권선징악, 불교의 교훈을 회심곡, 낙도가 등 그리고 천주교가사에서 종교의 교포를 위해 활용됨을 볼 수 있다. 셋째, 지역적으로 영남 지방에 가사가 널리 유포되어 있었다. 내방가사를 지금도 가경리 일대와 양동마을 등지에서 찾아볼 수 있을 정도이다. 넷째, 어떤 내용을 일반에게 전파시키기에는 가사와 같은 율문이 유리하다. 소설같은 산문속에 삽입가요(민요)나 가사구절이 들어가면 예가 그런 이유에서이다. 다섯째, 우리 민족의 감정을 역시 우리말로 표현하였으므로 '동경대전'은 한문을 이해하는 식자층(識者層)을 대상으로 하였다면 가사는 한글만 이해하는 사람은 누구나 읽을 수 있다. 그래서 '용담유사'는

부녀자나 서민을 상대로 지은 것이다.

동학사상의 근본이 무엇이나에 대한 연구는 철학계에서는 인내천사상으로 보고, 국사학계에서는 민족운동사로서의 민중사상을 정치학계에서는 민족주의라는 측면에서 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동학사상의 기본을 평등주의·혁명주의·민중주의의 셋으로 보고 있다.

그 중 '사람이 곧 하늘이다(人乃天)'라는 인민평등사상은 학대받고 천대받은 농민층·천민층에게 깊은 공감으로 받아들여졌다.

"사인이천(事人如天)이라는 주의하에서 상하·귀천·남녀·존비할 것 없이 똑똑 맞출을 하고 정어를 쓰며 서로 존경하는 데서 모두 심열성되었고, 둘째 죽이고 밟고 아찔하고 저너머고 도인인 서로 도와 서로 먹이라는 데서 모두 집안 식구같이 일심단결이 되었습니다." 이는 동학란 당시 입도한 도인의 심회로서 평등사상의 좋은 사례라고 본다.

우리 또한 빈천자로 초야에 자라나서 우리라 무슨 팔자 고진감래 없었소나 (안심가)

다같은 세상사람 우리복이 이러한가 (교훈가)

빈천자 곧 부귀와 거리가 먼 농민 천민들을 '우리'란 말로써 묶어 수운 자신도 그 속에 포함시키도록 비록 자신이 각도하여 한문답의 영(靈)이 내린 몸이면서도 다같은 위치에 선 인민평등을 말하고 있다. 둘째로 용담유사에는 인간적 상주의 곧 여성사상을 실린한

근대지향성을 들 수 있다.

현숙한 내집부인 이글보고 안심하소 내지생령 초복군생 사생재민 아닐진가 하물며 만물지간 유인(惟人)이 최령(最靈)일세 (안심가)

이것은 동학의 가장 기본사상인 인(人)의 개념을 그의 부인에게 요구하는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도수사'에서는 그의 여성권이 종교적인 사상으로 한층더 강화된(家範論)으로 발전되어 나타나고 있다. 수운은 여성들을 교육을 통해 의식을 기르게 함을 강조했음뿐만 아니라 품소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그가 데리고 왔던 여자노비를 해방시켜 평등한 수양딸로 한명은 며느리로 삼았는데 이는 신분제도 타파의 한 예로 인간평등사상의 구현이었다. 이러한 수운의 여성관인 가화지순(家和之順)의 사상을 해월은 더욱 발전시켜 부파부순(夫和婦順)의 사상으로 확립시켜 동학의 근대적 여성관을 형성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근대적 여성관은 갈고동학운동시에 구제적인 방편으로 나타났다. 즉 동학군의 폐정개혁안에는 사회개혁사상과 인간평등사상·민본사상 그리고 민족주의의 보국안민사상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그중 5항의 노비문서는 소거할 사와 6항의 절만천인의 대우는 개선하고 백정두상의 평양법은 탈거할 사는 계급의식의 타파를 주장한 것이며 7항의 청중과부는 개가를 할할 사는 여성들이 신분적인 굴레에서 벗어날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게 하였다.

이것은 동학의 가장 기본사상인 인(人)의 개념을 그의 부인에게 요구하는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도수사'에서는 그의 여성권이 종교적인 사상으로 한층더 강화된(家範論)으로 발전되어 나타나고 있다. 수운은 여성들을 교육을 통해 의식을 기르게 함을 강조했음뿐만 아니라 품소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그가 데리고 왔던 여자노비를 해방시켜 평등한 수양딸로 한명은 며느리로 삼았는데 이는 신분제도 타파의 한 예로 인간평등사상의 구현이었다. 이러한 수운의 여성관인 가화지순(家和之順)의 사상을 해월은 더욱 발전시켜 부파부순(夫和婦順)의 사상으로 확립시켜 동학의 근대적 여성관을 형성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근대적 여성관은 갈고동학운동시에 구제적인 방편으로 나타났다. 즉 동학군의 폐정개혁안에는 사회개혁사상과 인간평등사상·민본사상 그리고 민족주의의 보국안민사상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그중 5항의 노비문서는 소거할 사와 6항의 절만천인의 대우는 개선하고 백정두상의 평양법은 탈거할 사는 계급의식의 타파를 주장한 것이며 7항의 청중과부는 개가를 할할 사는 여성들이 신분적인 굴레에서 벗어날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게 하였다.

이것은 동학의 가장 기본사상인 인(人)의 개념을 그의 부인에게 요구하는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도수사'에서는 그의 여성권이 종교적인 사상으로 한층더 강화된(家範論)으로 발전되어 나타나고 있다. 수운은 여성들을 교육을 통해 의식을 기르게 함을 강조했음뿐만 아니라 품소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그가 데리고 왔던 여자노비를 해방시켜 평등한 수양딸로 한명은 며느리로 삼았는데 이는 신분제도 타파의 한 예로 인간평등사상의 구현이었다. 이러한 수운의 여성관인 가화지순(家和之順)의 사상을 해월은 더욱 발전시켜 부파부순(夫和婦順)의 사상으로 확립시켜 동학의 근대적 여성관을 형성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근대적 여성관은 갈고동학운동시에 구제적인 방편으로 나타났다. 즉 동학군의 폐정개혁안에는 사회개혁사상과 인간평등사상·민본사상 그리고 민족주의의 보국안민사상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그중 5항의 노비문서는 소거할 사와 6항의 절만천인의 대우는 개선하고 백정두상의 평양법은 탈거할 사는 계급의식의 타파를 주장한 것이며 7항의 청중과부는 개가를 할할 사는 여성들이 신분적인 굴레에서 벗어날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게 하였다.

이것은 동학의 가장 기본사상인 인(人)의 개념을 그의 부인에게 요구하는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도수사'에서는 그의 여성권이 종교적인 사상으로 한층더 강화된(家範論)으로 발전되어 나타나고 있다. 수운은 여성들을 교육을 통해 의식을 기르게 함을 강조했음뿐만 아니라 품소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그가 데리고 왔던 여자노비를 해방시켜 평등한 수양딸로 한명은 며느리로 삼았는데 이는 신분제도 타파의 한 예로 인간평등사상의 구현이었다. 이러한 수운의 여성관인 가화지순(家和之順)의 사상을 해월은 더욱 발전시켜 부파부순(夫和婦順)의 사상으로 확립시켜 동학의 근대적 여성관을 형성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근대적 여성관은 갈고동학운동시에 구제적인 방편으로 나타났다. 즉 동학군의 폐정개혁안에는 사회개혁사상과 인간평등사상·민본사상 그리고 민족주의의 보국안민사상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그중 5항의 노비문서는 소거할 사와 6항의 절만천인의 대우는 개선하고 백정두상의 평양법은 탈거할 사는 계급의식의 타파를 주장한 것이며 7항의 청중과부는 개가를 할할 사는 여성들이 신분적인 굴레에서 벗어날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게 하였다.

이것은 동학의 가장 기본사상인 인(人)의 개념을 그의 부인에게 요구하는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도수사'에서는 그의 여성권이 종교적인 사상으로 한층더 강화된(家範論)으로 발전되어 나타나고 있다. 수운은 여성들을 교육을 통해 의식을 기르게 함을 강조했음뿐만 아니라 품소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그가 데리고 왔던 여자노비를 해방시켜 평등한 수양딸로 한명은 며느리로 삼았는데 이는 신분제도 타파의 한 예로 인간평등사상의 구현이었다. 이러한 수운의 여성관인 가화지순(家和之順)의 사상을 해월은 더욱 발전시켜 부파부순(夫和婦順)의 사상으로 확립시켜 동학의 근대적 여성관을 형성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근대적 여성관은 갈고동학운동시에 구제적인 방편으로 나타났다. 즉 동학군의 폐정개혁안에는 사회개혁사상과 인간평등사상·민본사상 그리고 민족주의의 보국안민사상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그중 5항의 노비문서는 소거할 사와 6항의 절만천인의 대우는 개선하고 백정두상의 평양법은 탈거할 사는 계급의식의 타파를 주장한 것이며 7항의 청중과부는 개가를 할할 사는 여성들이 신분적인 굴레에서 벗어날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게 하였다.

이것은 동학의 가장 기본사상인 인(人)의 개념을 그의 부인에게 요구하는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도수사'에서는 그의 여성권이 종교적인 사상으로 한층더 강화된(家範論)으로 발전되어 나타나고 있다. 수운은 여성들을 교육을 통해 의식을 기르게 함을 강조했음뿐만 아니라 품소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그가 데리고 왔던 여자노비를 해방시켜 평등한 수양딸로 한명은 며느리로 삼았는데 이는 신분제도 타파의 한 예로 인간평등사상의 구현이었다. 이러한 수운의 여성관인 가화지순(家和之順)의 사상을 해월은 더욱 발전시켜 부파부순(夫和婦順)의 사상으로 확립시켜 동학의 근대적 여성관을 형성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근대적 여성관은 갈고동학운동시에 구제적인 방편으로 나타났다. 즉 동학군의 폐정개혁안에는 사회개혁사상과 인간평등사상·민본사상 그리고 민족주의의 보국안민사상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그중 5항의 노비문서는 소거할 사와 6항의 절만천인의 대우는 개선하고 백정두상의 평양법은 탈거할 사는 계급의식의 타파를 주장한 것이며 7항의 청중과부는 개가를 할할 사는 여성들이 신분적인 굴레에서 벗어날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게 하였다.

이것은 동학의 가장 기본사상인 인(人)의 개념을 그의 부인에게 요구하는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도수사'에서는 그의 여성권이 종교적인 사상으로 한층더 강화된(家範論)으로 발전되어 나타나고 있다. 수운은 여성들을 교육을 통해 의식을 기르게 함을 강조했음뿐만 아니라 품소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그가 데리고 왔던 여자노비를 해방시켜 평등한 수양딸로 한명은 며느리로 삼았는데 이는 신분제도 타파의 한 예로 인간평등사상의 구현이었다. 이러한 수운의 여성관인 가화지순(家和之順)의 사상을 해월은 더욱 발전시켜 부파부순(夫和婦順)의 사상으로 확립시켜 동학의 근대적 여성관을 형성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근대적 여성관은 갈고동학운동시에 구제적인 방편으로 나타났다. 즉 동학군의 폐정개혁안에는 사회개혁사상과 인간평등사상·민본사상 그리고 민족주의의 보국안민사상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그중 5항의 노비문서는 소거할 사와 6항의 절만천인의 대우는 개선하고 백정두상의 평양법은 탈거할 사는 계급의식의 타파를 주장한 것이며 7항의 청중과부는 개가를 할할 사는 여성들이 신분적인 굴레에서 벗어날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게 하였다.

이것은 동학의 가장 기본사상인 인(人)의 개념을 그의 부인에게 요구하는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도수사'에서는 그의 여성권이 종교적인 사상으로 한층더 강화된(家範論)으로 발전되어 나타나고 있다. 수운은 여성들을 교육을 통해 의식을 기르게 함을 강조했음뿐만 아니라 품소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그가 데리고 왔던 여자노비를 해방시켜 평등한 수양딸로 한명은 며느리로 삼았는데 이는 신분제도 타파의 한 예로 인간평등사상의 구현이었다. 이러한 수운의 여성관인 가화지순(家和之順)의 사상을 해월은 더욱 발전시켜 부파부순(夫和婦順)의 사상으로 확립시켜 동학의 근대적 여성관을 형성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근대적 여성관은 갈고동학운동시에 구제적인 방편으로 나타났다. 즉 동학군의 폐정개혁안에는 사회개혁사상과 인간평등사상·민본사상 그리고 민족주의의 보국안민사상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그중 5항의 노비문서는 소거할 사와 6항의 절만천인의 대우는 개선하고 백정두상의 평양법은 탈거할 사는 계급의식의 타파를 주장한 것이며 7항의 청중과부는 개가를 할할 사는 여성들이 신분적인 굴레에서 벗어날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게 하였다.

이것은 동학의 가장 기본사상인 인(人)의 개념을 그의 부인에게 요구하는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도수사'에서는 그의 여성권이 종교적인 사상으로 한층더 강화된(家範論)으로 발전되어 나타나고 있다. 수운은 여성들을 교육을 통해 의식을 기르게 함을 강조했음뿐만 아니라 품소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그가 데리고 왔던 여자노비를 해방시켜 평등한 수양딸로 한명은 며느리로 삼았는데 이는 신분제도 타파의 한 예로 인간평등사상의 구현이었다. 이러한 수운의 여성관인 가화지순(家和之順)의 사상을 해월은 더욱 발전시켜 부파부순(夫和婦順)의 사상으로 확립시켜 동학의 근대적 여성관을 형성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근대적 여성관은 갈고동학운동시에 구제적인 방편으로 나타났다. 즉 동학군의 폐정개혁안에는 사회개혁사상과 인간평등사상·민본사상 그리고 민족주의의 보국안민사상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그중 5항의 노비문서는 소거할 사와 6항의 절만천인의 대우는 개선하고 백정두상의 평양법은 탈거할 사는 계급의식의 타파를 주장한 것이며 7항의 청중과부는 개가를 할할 사는 여성들이 신분적인 굴레에서 벗어날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게 하였다.

이것은 동학의 가장 기본사상인 인(人)의 개념을 그의 부인에게 요구하는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도수사'에서는 그의 여성권이 종교적인 사상으로 한층더 강화된(家範論)으로 발전되어 나타나고 있다. 수운은 여성들을 교육을 통해 의식을 기르게 함을 강조했음뿐만 아니라 품소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그가 데리고 왔던 여자노비를 해방시켜 평등한 수양딸로 한명은 며느리로 삼았는데 이는 신분제도 타파의 한 예로 인간평등사상의 구현이었다. 이러한 수운의 여성관인 가화지순(家和之順)의 사상을 해월은 더욱 발전시켜 부파부순(夫和婦順)의 사상으로 확립시켜 동학의 근대적 여성관을 형성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근대적 여성관은 갈고동학운동시에 구제적인 방편으로 나타났다. 즉 동학군의 폐정개혁안에는 사회개혁사상과 인간평등사상·민본사상 그리고 민족주의의 보국안민사상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그중 5항의 노비문서는 소거할 사와 6항의 절만천인의 대우는 개선하고 백정두상의 평양법은 탈거할 사는 계급의식의 타파를 주장한 것이며 7항의 청중과부는 개가를 할할 사는 여성들이 신분적인 굴레에서 벗어날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게 하였다.

이것은 동학의 가장 기본사상인 인(人)의 개념을 그의 부인에게 요구하는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도수사'에서는 그의 여성권이 종교적인 사상으로 한층더 강화된(家範論)으로 발전되어 나타나고 있다. 수운은 여성들을 교육을 통해 의식을 기르게 함을 강조했음뿐만 아니라 품소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그가 데리고 왔던 여자노비를 해방시켜 평등한 수양딸로 한명은 며느리로 삼았는데 이는 신분제도 타파의 한 예로 인간평등사상의 구현이었다. 이러한 수운의 여성관인 가화지순(家和之順)의 사상을 해월은 더욱 발전시켜 부파부순(夫和婦順)의 사상으로 확립시켜 동학의 근대적 여성관을 형성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근대적 여성관은 갈고동학운동시에 구제적인 방편으로 나타났다. 즉 동학군의 폐정개혁안에는 사회개혁사상과 인간평등사상·민본사상 그리고 민족주의의 보국안민사상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그중 5항의 노비문서는 소거할 사와 6항의 절만천인의 대우는 개선하고 백정두상의 평양법은 탈거할 사는 계급의식의 타파를 주장한 것이며 7항의 청중과부는 개가를 할할 사는 여성들이 신분적인 굴레에서 벗어날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게 하였다.

이것은 동학의 가장 기본사상인 인(人)의 개념을 그의 부인에게 요구하는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도수사'에서는 그의 여성권이 종교적인 사상으로 한층더 강화된(家範論)으로 발전되어 나타나고 있다. 수운은 여성들을 교육을 통해 의식을 기르게 함을 강조했음뿐만 아니라 품소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그가 데리고 왔던 여자노비를 해방시켜 평등한 수양딸로 한명은 며느리로 삼았는데 이는 신분제도 타파의 한 예로 인간평등사상의 구현이었다. 이러한 수운의 여성관인 가화지순(家和之順)의 사상을 해월은 더욱 발전시켜 부파부순(夫和婦順)의 사상으로 확립시켜 동학의 근대적 여성관을 형성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근대적 여성관은 갈고동학운동시에 구제적인 방편으로 나타났다. 즉 동학군의 폐정개혁안에는 사회개혁사상과 인간평등사상·민본사상 그리고 민족주의의 보국안민사상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그중 5항의 노비문서는 소거할 사와 6항의 절만천인의 대우는 개선하고 백정두상의 평양법은 탈거할 사는 계급의식의 타파를 주장한 것이며 7항의 청중과부는 개가를 할할 사는 여성들이 신분적인 굴레에서 벗어날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게 하였다.

이것은 동학의 가장 기본사상인 인(人)의 개념을 그의 부인에게 요구하는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도수사'에서는 그의 여성권이 종교적인 사상으로 한층더 강화된(家範論)으로 발전되어 나타나고 있다. 수운은 여성들을 교육을 통해 의식을 기르게 함을 강조했음뿐만 아니라 품소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그가 데리고 왔던 여자노비를 해방시켜 평등한 수양딸로 한명은 며느리로 삼았는데 이는 신분제도 타파의 한 예로 인간평등사상의 구현이었다. 이러한 수운의 여성관인 가화지순(家和之順)의 사상을 해월은 더욱 발전시켜 부파부순(夫和婦順)의 사상으로 확립시켜 동학의 근대적 여성관을 형성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근대적 여성관은 갈고동학운동시에 구제적인 방편으로 나타났다. 즉 동학군의 폐정개혁안에는 사회개혁사상과 인간평등사상·민본사상 그리고 민족주의의 보국안민사상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그중 5항의 노비문서는 소거할 사와 6항의 절만천인의 대우는 개선하고 백정두상의 평양법은 탈거할 사는 계급의식의 타파를 주장한 것이며 7항의 청중과부는 개가를 할할 사는 여성들이 신분적인 굴레에서 벗어날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게 하였다.

이것은 동학의 가장 기본사상인 인(人)의 개념을 그의 부인에게 요구하는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도수사'에서는 그의 여성권이 종교적인 사상으로 한층더 강화된(家範論)으로 발전되어 나타나고 있다. 수운은 여성들을 교육을 통해 의식을 기르게 함을 강조했음뿐만 아니라 품소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그가 데리고 왔던 여자노비를 해방시켜 평등한 수양딸로 한명은 며느리로 삼았는데 이는 신분제도 타파의 한 예로 인간평등사상의 구현이었다. 이러한 수운의 여성관인 가화지순(家和之順)의 사상을 해월은 더욱 발전시켜 부파부순(夫和婦順)의 사상으로 확립시켜 동학의 근대적 여성관을 형성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근대적 여성관은 갈고동학운동시에 구제적인 방편으로 나타났다. 즉 동학군의 폐정개혁안에는 사회개혁사상과 인간평등사상·민본사상 그리고 민족주의의 보국안민사상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그중 5항의 노비문서는 소거할 사와 6항의 절만천인의 대우는 개선하고 백정두상의 평양법은 탈거할 사는 계급의식의 타파를 주장한 것이며 7항의 청중과부는 개가를 할할 사는 여성들이 신분적인 굴레에서 벗어날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게 하였다.

이것은 동학의 가장 기본사상인 인(人)의 개념을 그의 부인에게 요구하는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도수사'에서는 그의 여성권이 종교적인 사상으로 한층더 강화된(家範論)으로 발전되어 나타나고 있다. 수운은 여성들을 교육을 통해 의식을 기르게 함을 강조했음뿐만 아니라 품소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그가 데리고 왔던 여자노비를 해방시켜 평등한 수양딸로 한명은 며느리로 삼았는데 이는 신분제도 타파의 한 예로 인간평등사상의 구현이었다. 이러한 수운의 여성관인 가화지순(家和之順)의 사상을 해월은 더욱 발전시켜 부파부순(夫和婦順)의 사상으로 확립시켜 동학의 근대적 여성관을 형성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근대적 여성관은 갈고동학운동시에 구제적인 방편으로 나타났다. 즉 동학군의 폐정개혁안에는 사회개혁사상과 인간평등사상·민본사상 그리고 민족주의의 보국안민사상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그중 5항의 노비문서는 소거할 사와 6항의 절만천인의 대우는 개선하고 백정두상의 평양법은 탈거할 사는 계급의식의 타파를 주장한 것이며 7항의 청중과부는 개가를 할할 사는 여성들이 신분적인 굴레에서 벗어날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게 하였다.

이것은 동학의 가장 기본사상인 인(人)의 개념을 그의 부인에게 요구하는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도수사'에서는 그의 여성권이 종교적인 사상으로 한층더 강화된(家範論)으로 발전되어 나타나고 있다. 수운은 여성들을 교육을 통해 의식을 기르게 함을 강조했음뿐만 아니라 품소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그가 데리고 왔던 여자노비를 해방시켜 평등한 수양딸로 한명은 며느리로 삼았는데 이는 신분제도 타파의 한 예로 인간평등사상의 구현이었다. 이러한 수운의 여성관인 가화지순(家和之順)의 사상을 해월은 더욱 발전시켜 부파부순(夫和婦順)의 사상으로 확립시켜 동학의 근대적 여성관을 형성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근대적 여성관은 갈고동학운동시에 구제적인 방편으로 나타났다. 즉 동학군의 폐정개혁안에는 사회개혁사상과 인간평등사상·민본사상 그리고 민족주의의 보국안민사상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그중 5항의 노비문서는 소거할 사와 6항의 절만천인의 대우는 개선하고 백정두상의 평양법은 탈거할 사는 계급의식의 타파를 주장한 것이며 7항의 청중과부는 개가를 할할 사는 여성들이 신분적인 굴레에서 벗어날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게 하였다.

이것은 동학의 가장 기본사상인 인(人)의 개념을 그의 부인에게 요구하는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도수사'에서는 그의 여성권이 종교적인 사상으로 한층더 강화된(家範論)으로 발전되어 나타나고 있다. 수운은 여성들을 교육을 통해 의식을 기르게 함을 강조했음뿐만 아니라 품소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그가 데리고 왔던 여자노비를 해방시켜 평등한 수양딸로 한명은 며느리로 삼았는데 이는 신분제도 타파의 한 예로 인간평등사상의 구현이었다. 이러한 수운의 여성관인 가화지순(家和之順)의 사상을 해월은 더욱 발전시켜 부파부순(夫和婦順)의 사상으로 확립시켜 동학의 근대적 여성관을 형성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근대적 여성관은 갈고동학운동시에 구제적인 방편으로 나타났다. 즉 동학군의 폐정개혁안에는 사회개혁사상과 인간평등사상·민본사상 그리고 민족주의의 보국안민사상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그중 5항의 노비문서는 소거할 사와 6항의 절만천인의 대우는 개선하고 백정두상의 평양법은 탈거할 사는 계급의식의 타파를 주장한 것이며 7항의 청중과부는 개가를 할할 사는 여성들이 신분적인 굴레에서 벗어날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게 하였다.

이것은 동학의 가장 기본사상인 인(人)의 개념을 그의 부인에게 요구하는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도수사'에서는 그의 여성권이 종교적인 사상으로 한층더 강화된(家範論)으로 발전되어 나타나고 있다. 수운은 여성들을 교육을 통해 의식을 기르게 함을 강조했음뿐만 아니라 품소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그가 데리고 왔던 여자노비를 해방시켜 평등한 수양딸로 한명은 며느리로 삼았는데 이는 신분제도 타파의 한 예로 인간평등사상의 구현이었다. 이러한 수운의 여성관인 가화지순(家和之順)의 사상을 해월은 더욱 발전시켜 부파부순(夫和婦順)의 사상으로 확립시켜 동학의 근대적 여성관을 형성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근대적 여성관은 갈고동학운동시에 구제적인 방편으로 나타났다. 즉 동학군의 폐정개혁안에는 사회개혁사상과 인간평등사상·민본사상 그리고 민족주의의 보국안민사상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그중 5항의 노비문서는 소거할 사와 6항의 절만천인의 대우는 개선하고 백정두상의 평양법은 탈거할 사는 계급의식의 타파를 주장한 것이며 7항의 청중과부는 개가를 할할 사는 여성들이 신분적인 굴레에서 벗어날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게 하였다.

### 달해나 진경에

## 질서있는 사회



새벽 5시쯤이면 울림의 공원을 우리 몇 동산처럼 찾은지도 벌써 몇년이 지났다. 어둠침침한 시간대인지라 귀찮게도 여겨지기도 했지만 이제는 제법 습관처럼 되어 버렸으니 시작을 잡았다고 자위도 해본다. 옛 제재만도 단풍이 곱게 물들어 수확의 계절임을 실감했는데 이제는 낙엽이 뒤덮고 있어 겨울의 문턱에 성큼 다가온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속에 세월의 무상함을 되짚는다. 그런데 이곳을 다닐 때마다 나를 슬프게 하는 것이 있다. 내가 통행하는 공원입구에 교통신호등이 있는데 이 신호등을 무시하는 차량이 눈에 띄기 때문이다.

질서는 사회의 올바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켜야 하는 일정한 순서이다. 동물도 세계에서도 먹이를 쪼아 먹는 순서가 있듯이 인간사회에서도 질서가 있다. 조직사회에서 연공서열이 중시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비롯된다. 자기의 분수를 알고 자기의 순서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일이 그토록 억울한 일이라고 할 수는 없다. 꾸준한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순서가 오도록 되어 있는 것이 철칙이기 때문이다. 먼저 상대를 생각하고 자기 분수를 안다는 것은 질서와 의의의 기초가 된다.

인적이 뜬 새벽거리에서 적신호앞에 차를 멈추고 서있는 광경을 외국여행에서는 누구나 볼 수 있는 모습이다. 더구나 국적이나 운전경력이 많은 말한 것도 없고 상점에서도 끝없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도 새끼 하나없는 참을성을 우리는 왜 배우지 못하는 것일까? 이라고도 선진국의 문턱에 와있으며 문화국민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안타까울 뿐이다.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규칙을 위반하고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를 보고해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질서있는 사회에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도 위반자는 배척을 받게 된다. 결국 이 사회를 유지해 가는 것은 시민 전체의 공동노력이다. 소공물 의양만 고치는 일이 아니라도 이를 극복해야 한다. 이를 고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는 바로 일어설 수 없다. 공동체의식에 대한 인식이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할 때이다. 맑고 시원한 새벽공기가 그리워지는 시점이야.

그제만해도 단풍이 곱게 물들어 수확의 계절임을 실감했는데 이제는 낙엽이 뒤덮고 있어 겨울의 문턱에 성큼 다가온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속에 세월의 무상함을 되짚는다. 그런데 이곳을 다닐 때마다 나를 슬프게 하는 것이 있다. 내가 통행하는 공원입구에 교통신호등이 있는데 이 신호등을 무시하는 차량이 눈에 띄기 때문이다.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규칙을 위반하고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를 보고해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질서있는 사회에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도 위반자는 배척을 받게 된다. 결국 이 사회를 유지해 가는 것은 시민 전체의 공동노력이다. 소공물 의양만 고치는 일이 아니라도 이를 극복해야 한다. 이를 고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는 바로 일어설 수 없다. 공동체의식에 대한 인식이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할 때이다. 맑고 시원한 새벽공기가 그리워지는 시점이야.

인적이 뜬 새벽거리에서 적신호앞에 차를 멈추고 서있는 광경을 외국여행에서는 누구나 볼 수 있는 모습이다. 더구나 국적이나 운전경력이 많은 말한 것도 없고 상점에서도 끝없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도 새끼 하나없는 참을성을 우리는 왜 배우지 못하는 것일까? 이라고도 선진국의 문턱에 와있으며 문화국민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안타까울 뿐이다.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규칙을 위반하고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를 보고해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질서있는 사회에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도 위반자는 배척을 받게 된다. 결국 이 사회를 유지해 가는 것은 시민 전체의 공동노력이다. 소공물 의양만 고치는 일이 아니라도 이를 극복해야 한다. 이를 고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는 바로 일어설 수 없다. 공동체의식에 대한 인식이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할 때이다. 맑고 시원한 새벽공기가 그리워지는 시점이야.

인적이 뜬 새벽거리에서 적신호앞에 차를 멈추고 서있는 광경을 외국여행에서는 누구나 볼 수 있는 모습이다. 더구나 국적이나 운전경력이 많은 말한 것도 없고 상점에서도 끝없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도 새끼 하나없는 참을성을 우리는 왜 배우지 못하는 것일까? 이라고도 선진국의 문턱에 와있으며 문화국민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안타까울 뿐이다.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규칙을 위반하고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를 보고해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질서있는 사회에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도 위반자는 배척을 받게 된다. 결국 이 사회를 유지해 가는 것은 시민 전체의 공동노력이다. 소공물 의양만 고치는 일이 아니라도 이를 극복해야 한다. 이를 고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는 바로 일어설 수 없다. 공동체의식에 대한 인식이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할 때이다. 맑고 시원한 새벽공기가 그리워지는 시점이야.

인적이 뜬 새벽거리에서 적신호앞에 차를 멈추고 서있는 광경을 외국여행에서는 누구나 볼 수 있는 모습이다. 더구나 국적이나 운전경력이 많은 말한 것도 없고 상점에서도 끝없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도 새끼 하나없는 참을성을 우리는 왜 배우지 못하는 것일까? 이라고도 선진국의 문턱에 와있으며 문화국민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안타까울 뿐이다.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규칙을 위반하고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를 보고해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질서있는 사회에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도 위반자는 배척을 받게 된다. 결국 이 사회를 유지해 가는 것은 시민 전체의 공동노력이다. 소공물 의양만 고치는 일이 아니라도 이를 극복해야 한다. 이를 고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는 바로 일어설 수 없다. 공동체의식에 대한 인식이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할 때이다. 맑고 시원한 새벽공기가 그리워지는 시점이야.

인적이 뜬 새벽거리에서 적신호앞에 차를 멈추고 서있는 광경을 외국여행에서는 누구나 볼 수 있는 모습이다. 더구나 국적이나 운전경력이 많은 말한 것도 없고 상점에서도 끝없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도 새끼 하나없는 참을성을 우리는 왜 배우지 못하는 것일까? 이라고도 선진국의 문턱에 와있으며 문화국민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안타까울 뿐이다.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규칙을 위반하고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를 보고해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질서있는 사회에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도 위반자는 배척을 받게 된다. 결국 이 사회를 유지해 가는 것은 시민 전체의 공동노력이다. 소공물 의양만 고치는 일이 아니라도 이를 극복해야 한다. 이를 고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는 바로 일어설 수 없다. 공동체의식에 대한 인식이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할 때이다. 맑고 시원한 새벽공기가 그리워지는 시점이야.

인적이 뜬 새벽거리에서 적신호앞에 차를 멈추고 서있는 광경을 외국여행에서는 누구나 볼 수 있는 모습이다. 더구나 국적이나 운전경력이 많은 말한 것도 없고 상점에서도 끝없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도 새끼 하나없는 참을성을 우리는 왜 배우지 못하는 것일까? 이라고도 선진국의 문턱에 와있으며 문화국민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안타까울 뿐이다.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규칙을 위반하고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를 보고해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질서있는 사회에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도 위반자는 배척을 받게 된다. 결국 이 사회를 유지해 가는 것은 시민 전체의 공동노력이다. 소공물 의양만 고치는 일이 아니라도 이를 극복해야 한다. 이를 고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는 바로 일어설 수 없다. 공동체의식에 대한 인식이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할 때이다. 맑고 시원한 새벽공기가 그리워지는 시점이야.

인적이 뜬 새벽거리에서 적신호앞에 차를 멈추고 서있는 광경을 외국여행에서는 누구나 볼 수 있는 모습이다. 더구나 국적이나 운전경력이 많은 말한 것도 없고 상점에서도 끝없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도 새끼 하나없는 참을성을 우리는 왜 배우지 못하는 것일까? 이라고도 선진국의 문턱에 와있으며 문화국민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안타까울 뿐이다.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규칙을 위반하고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를 보고해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질서있는 사회에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도 위반자는 배척을 받게 된다. 결국 이 사회를 유지해 가는 것은 시민 전체의 공동노력이다. 소공물 의양만 고치는 일이 아니라도 이를 극복해야 한다. 이를 고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는 바로 일어설 수 없다. 공동체의식에 대한 인식이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할 때이다. 맑고 시원한 새벽공기가 그리워지는 시점이야.

인적이 뜬 새벽거리에서 적신호앞에 차를 멈추고 서있는 광경을 외국여행에서는 누구나 볼 수 있는 모습이다. 더구나 국적이나 운전경력이 많은 말한 것도 없고 상점에서도 끝없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도 새끼 하나없는 참을성을 우리는 왜 배우지 못하는 것일까? 이라고도 선진국의 문턱에 와있으며 문화국민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안타까울 뿐이다.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규칙을 위반하고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를 보고해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 사람에게



# 학복위 특감결과 공식발표이전 유인물 배포

## 총학, 선거악용 가능성 우려

### 오는 30일 발표되는 공식발표에 귀추 주목

학복위 공개특별감사와 관련된 공인회계사의 공식발표이전 1차보고서는 유인물이 학내에 배포돼 선거법 위법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학복위 공개특별감사와 관련된 공인회계사의 공식발표이전 1차보고서는 유인물이 학내에 배포돼 선거법 위법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공인회계사측은 유인물에서 탈피하고 있는 7백~8백선의 자금유용권은 지난 22일 김근이 찾아왔을 때도 얘기한 적이 없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제 대학 공인회계사측은 유인물에서 탈피하고 있는 7백~8백선의 자금유용권은 지난 22일 김근이 찾아왔을 때도 얘기한 적이 없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유인물 배포 당일 표현방식의 왜곡됨과 작성이 자신이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혀 의혹을 사고 있다.

## 경주 단과대 선거후보자 등록마감

### 동원·졸준위 내달초 투표 실시

의과대, 불교문화대학을 제외한 경주캠퍼스 각 단과대 학생회 정·부회장은 선거가 지난 22일로 후보등록을 마감하고 본격적인 유세활동에 들어갔다.

의과대, 불교문화대학을 제외한 경주캠퍼스 각 단과대 학생회 정·부회장은 선거가 지난 22일로 후보등록을 마감하고 본격적인 유세활동에 들어갔다.

의과대, 불교문화대학을 제외한 경주캠퍼스 각 단과대 학생회 정·부회장은 선거가 지난 22일로 후보등록을 마감하고 본격적인 유세활동에 들어갔다.

의과대, 불교문화대학을 제외한 경주캠퍼스 각 단과대 학생회 정·부회장은 선거가 지난 22일로 후보등록을 마감하고 본격적인 유세활동에 들어갔다.

의과대, 불교문화대학을 제외한 경주캠퍼스 각 단과대 학생회 정·부회장은 선거가 지난 22일로 후보등록을 마감하고 본격적인 유세활동에 들어갔다.

	기초 1	기초 2
인문대	정: 오정기(철4) 부: 송인호(영문3)	정: 박기원(생물3) 부: 서원복(조경3)
자연대	정: 최창용(화3) 부: 정성섭(전산3)	정: 박기원(생물3) 부: 서원복(조경3)
법정대	정: 최중철(법3) 부: 박희정(행정3)	정: 박기원(생물3) 부: 서원복(조경3)
상경대	정: 김준현(경영3) 부: 김성기(경제3)	정: 박기원(생물3) 부: 서원복(조경3)

### 전자공학과 엑스포 관련 강연회

전자공학과는 오는 29일 1시에 원동관(전자공학과세미나실)에서 강연회를 갖는다.

### 미등록 제적 47명

93학년도 2학기 미등록 제적이 47명으로 최종 집계되었다.

### 특별기금 지원 해외연수교원

교무처(처장=정병조·국민윤리)는 94학년도 2학기 교직원 해외연수 특별기금지원 교원해외연수자로 임돈희(사학), 한진호(대학), 강태호(조경학) 교수 등 3명을 확정했다.

### 경주 수계법회

경주캠퍼스 제6기 수계법회가 지난 20일 오전 11시 정각 원(원장=최창식·불교학)에서 수계자 97명과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출판부를 진단한다

## 인식전환과 재정지원 필요

출판부(부장=김용철)는 지난 1학기동안 '한국과학사상사 연구(이용범저), '노예의 길(R.A. 하이에크저), '김정영 출간', '일반생물학(김주필저)' 등 3권의 책을 출판하는 실적을 올렸다.

우선, 학교지원은 사실상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출판부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예산은 출판부에서 제작한 도서의 판매수익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전공교수는 외부출판사에 맡겨져 교수 개인의 영달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 정의·행정학과 교수충원 요구

### 학교당국·학생회 견해차로 마찰 예상

94학년도 1학기 교수채용이 예년보다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행정학과 행정학과 등 일부학과에서 교수충원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현재 행정학과와 행정학과 교수 6명의 현수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강의 맡고 있는 교수는 4명 뿐이며 1명은 국회의원의직을 맡고 있어 휴직상태이며 다른 한명은 보직을 맡고 있어 실질적으로 강의 진행이 어려운 상태이다.

학교공고는 오는 29일 이후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대학원 20주년 기념세미나 20주년 기념세미나 20주년 기념추계학술세미나 '신한국 창조경영인의 역할'이라는 6일 최영우(민자당)의원을 강사로 초청해 한국산업연수원에서 열린다.

### 학과소식

- 경영학과** : 주간과 야간 공동으로 주최하는 한노한마당이 오는 28, 29일 열릴 예정이다.
- 무역학과** : 제7회 누리제를 오는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심포지움(GATT), 체육대회, 무역인의 밤 등의 행사로 가린다.
- 정보관리학과** : 자기학생회장 선출을 안건으로 11월 3일 오후 3시 동관(L401)에서 정기총회를 가진다.
- 미술학과** : 제19회 졸업미진이 인사동 맥스갤러리에서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열린다.
- 연극영화학과** : 오는 28, 29일 소극장입구에서 차기 학생회장 투표를 실시한다.

## 경주 대의원 총회 열어 의장선출·학생회비 인상

경주캠퍼스 총대의원회(의장=이종철·간부4)총회 및 제11대 정·부회장 선거가 지난 19일 오후 5시 도서관 시청각실에서 대의원 8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안장으로 환불소등을 빛은 학생회비는 경주캠퍼스도 94학년도 1학기부터 8천원으로 인상 납부하게 됐다.

안상으로 환불소등을 빛은 학생회비는 경주캠퍼스도 94학년도 1학기부터 8천원으로 인상 납부하게 됐다.

종이컵의 여성... "까만 하늘에 날벼락"이라고 며칠전 길을 걸었던 한 학생은 갑자기 쏟아진 종이컵에 간신히 피하진 않았으나 그안에 가득한 담배찌꺼기와 재물을 보고 간이 콩알만 해졌다는데, 재 활용의 모범이라고도 보이며 다른 종이컵들을 재활용이로 활용하는 것까지야 누가 뭐라 하겠나만은 대부분 강의실에서 밖에 채워 풀러다니거나 창문에 붙여 바람에 날려가지만을 기다리는 운명이라고.

### 강의실에서 구르는 종이컵... 여성은 쓰레기통에서

이제 본 회전무대자 "종이컵의 여성은 쓰레기통에서!"

이제 본 회전무대자 "종이컵의 여성은 쓰레기통에서!"

이제 본 회전무대자 "종이컵의 여성은 쓰레기통에서!"

박물관(관장=홍윤식·역사교육)은 내부수리공사로 인해 지난 25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휴관에 들어갔다.

### 야간강좌 교과위 학술제 실행

야간강좌 총학생회(회장=박정진·야간부4)는 야간강좌 교과과정학생위원회(위원장=김동선·야간회3)주최로 전공 학술제의 올바른 준비를 위한 타학과 실행조사를 이번 주와 내달 첫주까지 실시한다.

천리안인 신세대에게 드리는 가장 저렴한 서비스 - 천리안POP

# "지금 천리안POP의 세계로 오십시오"

10월 1일부터 01420으로 전국 어디서나 시내전화요금으로 천리안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절대 다 신세대 일까요? 세월일 절하고, 친구도 다양하고 취미도 증갈을 알고, 정보도 원-해야. 신세대에 꼭 필요한 종합정보서비스, 천리안 팝! 천리안 팝은 월정액 6천원만으로도 PC통신과 정보 서비스를 요금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종합정보서비스입니다. 천리안POP / 지금 신청하십시오!

■ 무료서비스인 "GUEST"를 이용해보세요!  
천리안서비스중 공개서비스(생활 및 교통정보)를 GUEST ID를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천리안 팝이란? : PC통신을 즐기는 신세대 위해 국내 최고의 종합정보서비스 천리안 팝! 천리안 팝은 월정액 6천원만으로도 입선하여 제공하는 가장 저렴한 서비스입니다.

■ 천리안 서비스란? : 데이콤의 종합정보서비스로서 키보드만 누르면 각종의 다양한 정보이용과 대화, 토론, 동화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가입 즉시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최고, 최대의 서비스입니다.

■ PC통신 : 250여종의 통신서비스 \* 정보이용 : 900여종의 데이터베이스

■ 신청방법 : 모델이 있을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데이콤 지사와 지정점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요금저당납부제도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데이콤

데이콤 종합안내센터 (02)220-0220  
080-023-0220 (데이콤 요금부담전화)

신세대는 광범위한, 하비드 박사도 부럽잖다

시간과 돈을 절약하면서 다양한 이점들을 누릴 수 있다

PC통신의 세계가 이렇게 신나는 줄 몰랐어요

문화예술에서 시사정보까지 - 정보맨이란 소말 듣는다

신세대는 미래, PC철학으로 사주·운명·궁합도 본다

둘러다녀도 휘어나 아바타의 정복자 많다

전국지사 : 부산지사 220-0220 • 전남지사 225-0011 • 3 • 경북지사 753-9991 • 4 • 충청지사 220-0220 • 전북지사 253-6661 • 강원지사 48-0001 • 2 • 제주지사 56-0056

지점 : 서울 경기 • 강남 553-1741-4 • 강동 479-0220 • 강북 986-0391-3 • 강서 653-6001-2 • 서대문 707-0220 • 서초 552-3340-1 • 용산 702-3041 • 중랑 232-6464 • 부천 657-1117 • 인천 435-0515

• 수원 252-9001-5 • 성남 702-0110 • 안양 41-1601-3 • 의정부 45-3535 • 대구 경북 • 대구 426-0700 • 울진 351-8000 • 안동 54-6268-9 • 예천 72-5500 • 부산 경남 • 부산 248-9300-3 • 동부 633-6011 • 부산 41-3840-1 • 울산 75-0077-5 • 광주 41-0040 • 광주 전남북 • 광주 364-4200 • 여수 745-2400 • 목포 72-1010 • 광주 83-5277 • 대전 42-1000 • 대전 충청 • 대전 257-1007-8 • 대전 555-6500 • 광주 52-9645 • 광주 645-5001-8 • 온천 54-4385 • 광주 732-3200 • 제주 • 제주 55-7335-6

◇ 철거촌 공부방 선생님이 본 꽃마을 아이들

# “무허가 판자촌 딱지 떼어요”



◇ 철거촌인 서초동 꽃마을 사람들은 영구임대 APT로 이주했다. 이제야 철거와 화재의 불안에서 벗어났지만 자녀교육문제 부모들은 아직도 걱정이다.

“우리에게 집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울어다니 살아 생전에 작은집이라도 있었으면...” 철거로 인해 집을 잃기 전 철거지역 아들이자 주 불렀던 노래의 한도박이다. 도시빈민 중에서 철거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철거촌에서 쫓겨난 사람들을 치러 “집” 때문에 서러운 눈물을 흘린 사람들은 드물 것이다. 각기 다른 사람들이 한곳에 모여 집단적인 혼란 형태를 이루며, 공동체적인 생활을 하는 철거민들은 도시사회에서 보기 드문 이웃과의 정이랄까 혈통성을 갖게 되는 데, 갑작스런 강제철거에 의해 파괴된다. 폐쇄된 지역이나 무허가 판자촌(비닐하우스촌)에 거주하므로 강제 철거는 있을 수 밖에 없으며, 철거 형태 또한 폭력적이다. 이로 인해 가장 가까이서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부류는 철거지역의 아동들이다. 무허가 판자촌의 경우 작은 땅에 많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 자연스럽게 마을 전체 주민들이 서로 알고 지낸다. 철거지역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마을주민 총회나, 마을 구청가게 앞에 모이면 팔도 지방 사투리가 화음을 이룬다. 일정한 일거리가 없는 사람들은 안정적인 직업이 없어서인지 돌연적인 직업이 많다. 이들은 거의 매일 모여서 술을 마시거나 화투 치면서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거친 언어나 욕설을 내뱉는다. 특히 철거 일자가 가까워 지면 주민들은 간담하고 신경이 예민해

진다. 이럴때 일수록 주민들은 죄 없는 아이들에게 화를 내기 일쑤다. 아이들은 불안스런 눈으로 어른들의 언어나 행동을 대한다. 그러나 어른들의 거친 행동이나 욕설 등에 대해 시간이 흐를수록 무뎠어진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끼리 놀면서 어른들이 말한 욕설이나 거친 행동을 흉내 내거나 그대로 사용하기도 한다. 마을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공부한다 해도 옆집과 벽이 베어파는 소리가 들려서 잠을 못 이루는 아이들이 많다. 마을에서 큰 소리를 치거나 싸움을 하면 동네 전체가 떠들썩한다. 친여세대가 온집안 마을일 경우 아이들은 거의 매일 싸움을 구경할 수 있다. 작년, 철거된 서초동 꽃마을의 경우 친여세대가 넘는 마을에 구멍가게는 두군데 밖에 없었다. 마을 한가운데 모여 방앗간까지 술을 마시다보면 자연히 높은 언성이 오고 가게 마련이다. 이런 일들은 철거촌에서 영구임대 APT로 이주 하기도 비밀비해 됐다. 이때 어른들의 언어 폭력을 아이들은 가장 싫어 한다. 술주정하거나 어른들끼리 싸울때보다 ‘욕설’을 할 때 아이들은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 같다. 어려울수록 자녀에 기대가 커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대부분 마을을 떠나고 싶어 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의 교육문제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당장 이사 갈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안주하면서 아이들을 학교에서 돌아오면 일반 주택가 사람들의 교육열

과 비슷한 정도로 일반 학원에 보내는 부모들이 많다. 그만큼 자신의 가난함을 아이들을 통해 극복하거나 대물림하고 싶지 않아서 기대감 또한 크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장애와도 일방적으로 높은 지위나 돈 많이 버는 직업을 위해 아이들 스스로도 권력이나 사업가를 많이 말한다. 판자집에 살면서 근처 일반 주택의 부자들처럼 쉽게 비교될 수 있으며, 부모들은 아이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돈벌어서 새 집으로 이사 간다고 얘기하거나 열심히 공부 해야만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말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무조건적인 높은 교육열로 인해 아이들은 정서적,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많이 느껴 부모님이 가장 미워 보일 때가 자주 공부 하라고 강요할 때이다. 설문조사 결과 “공부 하라고 강요할 때” 아이들은 “가슴”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고 나타났다. 집안이 가난하거나 부모님의 무관심도 가슴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경우 자주 공부 하라고 강요할때도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한 것은 사실이다. 자식 동사에 투자하는 돈은 아깝지 않다는 말이 있듯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영구임대 APT로 이사한 아이들 무허가 판자촌에서 철거와 화재로 불안과 공포속에 살아 왔던 아이들... 어느날 학교에서 돌아와 화재로 불타버린 폐허 위에서 아무런 영문도 모른채 눈을 흘렸던 아이들이 그레도 서초동 꽃마을이 기억에 남을 것이다.

꽃마을에서 흙을 만지며 놀았던 아이들이 지금은 콘크리트 APT로 이주 한지 1년이 되었다. 1년간 생활 하면서 느낀점은 서로 다르지만 공통적인 생각은 꽃마을에서나 영구 임대 APT에서 똑같은 현상은 어른들의 술주정이나 욕설이다. 또한 전체적인 생각일수는 없지만, 저학년일수록 서초동 꽃마을이 더 좋았다 한다. 꽃마을에서처럼 친구들과 쉽게 어울려 놀다가 집에 한 번 들어가면 친구들과 놀자고 얘기하기 힘들다고 한다. 국민학생인 이세호군은 “꽃마을에 살 때는 새 집으로 이사가는 꿈을 많이 꾸었어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 외판성에 온갖 같이요”라고 말했다. 폭력성 산동내에서 왔다는 한 어린이는 “폭력동에서는요, 산에 오르면 뛰놀 수 있었지만 여기는 답답해요. 애들보고 놀자고 해도 집에 들어가면 안나와요”라고 말했다. 영구임대 APT로 이사 오니까 더 좋다고 말하는 소정현(중2)양은 꽃마을에서 6년간 살았다. 이곳에선 불에 대한 걱정이 없고 비가 와도 천장에서 빗물이 새지 않아 겨울에는 추지 않고 여름에는 덥지 않을 것이라 한다. 그래서 꽃마을보다 몇 배 좋아하며 밝게 웃는 모습에서 무허가 판자촌이 얼마나 열악한 곳이었는지 느낄 수 있었다. 이제 꽃마을에서처럼 화장실을 갈 때 쉴새 없이 돌아도 된다. 친구들의 편지도 집에서 직접 받아 볼 수 있고, 번지 없는 무허가 판자촌의 딱지를 떼어서 신난다고 한다.

경제철거의 악몽에서 갓 벗어난 아이들을 볼때마다 또 한가지 걱정이 든다는 김경자(가명)씨는 강남지역 APT촌에서 수차례 영구임대 APT에 산다고 8학년 아이들에게 기가 죽을까봐 걱정 된다며 하루 빨리 영세민 딱지를 떼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한다. 계층의식이 뚜렷이 보이는 강남지역에 들어와 오투기처럼 사는 철거민들... 자녀의 교육문제와 기대감은 강남지역에서 가장 높은 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조 전 현 (전 꽃마을 건반방 교사·농경 80 줄)

## 영화의 패러독스

마리오 반 피블스 감독 ‘파시’ 시위 같은 ‘흑인적’ 영화 서부극 풍자로 백인신화 조롱



영화는 현실을 반영하고 충실하게 복제해낸다. 과연 영화는 현실의 이면에 놓인 진실 또는 본질을 얼마만큼 드러낼 수 있을까. 영화가 단지 오락인 점을 떠나서 내면의 깊이까지 파고드는 중요한 매체라면 그것은 어디까지인가. 마리오 반 피블스 감독의 미국영화 ‘파시’를 보면 종래의 영화와는 다른 느낌을 받게 된다. 요즘엔 잘 만들어지지 않지만 가끔씩 나타나는 지나간 장르 서부극이고 흑인들이 활약하는 특이한 영화인 것이다. 흑인이 주인공이 되어 선한 인물이 되고 백인이 악당이 되는 그런 서부극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영화는 아주 의도적으로 만든 흑인영화이다. 왜 이런 극단적인 흑인영화가 나타나고 있을까. 최근의 ‘발롱X’를 만든 스키리 리, ‘부메랑’을 만든 에디 머피, 그리고 마리오 반 피블스는 백인관객이라면, 아마 한명도 보지 않을 그런 ‘흑인적’ 영화를 한결같이 만든다. 그건 마치 무슨 양심의 행동일지도 하고 일종의 시위며, 운동일지도 하다. 왜 그런 영화가 나오고 있을까. 우리가 미국영화에 대해서 좀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것이 얼마나 인종적, 계급적, 성적으로 모순화되어 있는지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영화뿐만 아니라 미국문화 전반이 어떤 하나의 중심문화로 형성하며 지배적으로 움직인다. 그런 백인중심이며, 중상류층의 착취적 권력중심이고, 또한 남성기부중심주의 문화이다. 현실의 표면은 항상 평등하며 평화롭지만, 그 이면의 진실은 불평등하고 분노에 가득차 있다. 그러한 갈등의 모순은 헐리우드 속에서 항상 소재로 취급되어 오지만, 언제나 결론은 지배문화의 논리로 이끌어 나간다. 가장 대중적인 오락으로 기능하는 영화속에서 그렇게 현실이 은폐되고 왜곡될 때 피해를 당하는 당사자들은 영화를 보고 깊이 공감하거나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싶어 한다. 바로 그 피해자들이 흑인이었고 노동자들이며 여성이었다. 이 영화 ‘파시’의 서두는 한 늙은 흑인이 과거를 회상하며 이명(이제)의 대항 흑인영웅들이 있었다고 역사서술을 한다. 그는 영화의

서술자이면서 동시에 역사의 증인이며, 그것은 진실이라는 느낌을 주기 위한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백인이스트로의 역사를 반성하듯이 만든 서부극의 역사관의 서부극 ‘작은 거인’에서 이미 쓰여진 수법이 다. ‘파시’는 오히려 그 영화를 의식한 듯하며, 백인 서부극을 풍자(패러디)하고 있다. 패러디 기법은 현대영화의 한 보편적인 방식으로, 흑인영화 ‘발롱X’가 백인들에 의해 수상한 마틴 루터 킹과 케네디 신화를 조롱하기 위해 ‘JFK’를 패러디화한 것과 같은 경우이다. 종래의 오락상품으로서의 서부극 장르가 새로운 가치관으로 다시 탄생할 때, 이미 그 영화는 단순한 오락의 차이를 초월한다. ‘파시’는 백인들에 의해 왜곡되어온 헐리우드 영화의 역사, 미국 건설의 역사를 흑인 시각, 소수 민족의 시각으로 다시 읽어내려 준다. 영화 한편이 우리의 고정관념을 뒤엎는 경우는 분명 영화보기의 한 즐거움이다. ‘파시’를 통해 우리는 지식의 즐거움에 또한 건강한 문화생산을 어떻게 돕는지를 스스로 깨닫는다.

정 세 호 (예술대 연영과 교수·영화평론가)

### 문화단신

공연안내  
◇우리가 서로를 알지 못했다

우리는 서로를 알지 못했다. 이번 연극은 국내 최초의 침묵극이며 관객제한(50명)을 최초로 시도한다. 연극은 관객을 뒤편 산보객으로 처리한다. 연극 실험 협회동 1번지 11월5일부터 12월31일까지. 533-5739

수입영화의 이익을 한국영화계 작비로 돌린다는 그럴듯한 논리가 받아들여졌던 것인가? 문화체육부는 이번 결정의 이유로 한국영화제작의 전반적인 부진과 실정론으로 인한 자금압박으로 영화편수가 줄어든 것을 들고 있다. 그러나 조금만 눈여겨 살펴보면 문화체육부나 수입업자들의 주장이 근거없는 논리를 보게된다.

이유로 영화시장을 헐리우드에 내준이래 한번도 영화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한 내은 일이 없었다. 오히려 수입업자들에 섰뿐 한국영화의 난도질하는 역할만을 해왔을 뿐이다. ▲오늘(27일)은 영화인의 날이다. 이날 문화체육부의 발표이후 영화인협회 해체한 한국영화인들은 범영화인 비상대책위를 꾸리고 항의농성과 선전집회를 진행했다. 모두 카메라를 들고 자축해야 할 날에 거리로 나서고 있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우리의 문화, 외세문화와 외래문화로부터 새롭게 울려퍼졌던 우리의 영상은 정부가 의면함으로써 어둠에 휩싸이고 있다. 이번 문제가 영화인들의 문제일 뿐 아니라 다시는 서부극과 같은 우리의 영화를 볼 수 없을지 모르는 우리의 문제라는 생각이 마음이 답답하다. (수)

### 한국영화의 위기

헐리우드 영화 1편의 성공으로 또다른 외화수입에 골몰했던 그들이 한국영화제작을 위해 힘썼던 일은 없었다. 이번 문화체육부의 발표는 한국영화진흥이라는 정부의도가 기만적이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준다. 지난 87년 군사정권이 미국측의 무역보복을



## 해적이고 생산적인 산업사의 창조

# “미래 자동화사회를 여는 가장 앞선 기술”

산업자동화분야

환경-에너지분야

전기-전자분야

서비스서비스분야

**금성산전은 종합 산업 전기·전자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자동화사회를 앞서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산업용 전기·전자 분야의 세계 초일류 기업을 지향하는 금성산전은 산업 전반에 걸친 종합 기술력을 바탕으로 21세기 첨단 자동화사회를 앞서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금성산전은 종합 산업 전기·전자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자동화사회를 앞서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산업용 전기·전자 분야의 세계 초일류 기업을 지향하는 금성산전은 산업 전반에 걸친 종합 기술력을 바탕으로 21세기 첨단 자동화사회를 앞서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산업자동화분야**

- 로봇 ● PLC ● CNC ● 인버터 ● 물류자동화시스템
- 공장 및 빌딩 자동화시스템 ● 교통관제시스템
- 전력제어시스템 등 다양한 시스템 엔지니어링

**서비스서비스분야**

- 엘리베이터 ● 에스컬레이터 ● 주차장시스템 ● 지게차
- 차량관리기기 ● 자판기 ● 전동공구 등

**전기·전자분야**

- 초고압설비 ● 배전설비 ● 고지압기기 ● 변전설비
- 제어계측기기 ● 광반도체 등

**환경-에너지분야**

- 상하수처리시스템 ● 전기집전기
- 저의신상급시스템 등 각종 공해방지설비
- 태양광발전시스템 ● 열병합발전시스템 ● 태양열온수기
- 축열기 등 대체 에너지기기

**금성산전**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동 20 (여의도동 20번지) 금성빌딩 4층

대표전화: (02) 787-1114